

ART
IS
OUR
POWER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한예종 사태 자료집

ART
IS
OUR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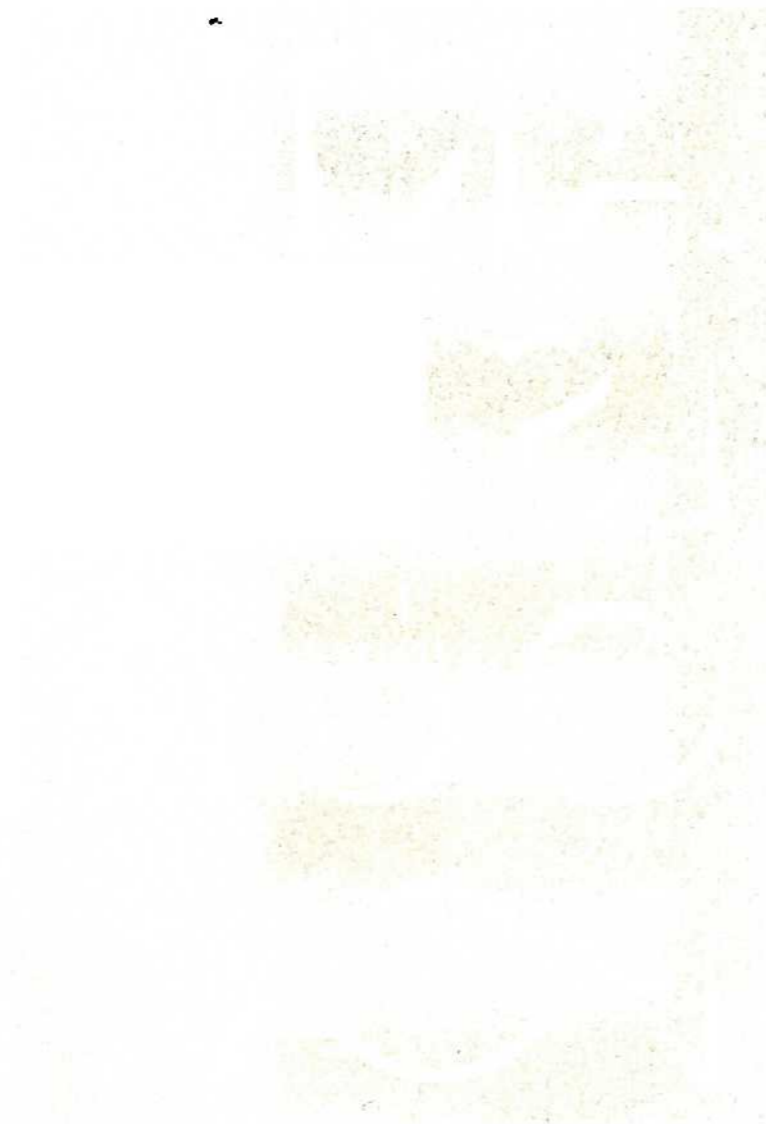
‘한예종 사태’ 자료집 1

<http://blog.naver.com/loveknua>
<http://cafe.naver.com/knuatheory.cafe>

ART-
IS
OUR
POWER

‘한예종 사태’ 자료집 1

<http://blog.naver.com/loveknu>
<http://cafe.naver.com/knuatheory>



'한예종 사태' 자료집 1
〈Art is our power〉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한예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

여는 글

5월 19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와 15년여를 함께 해오신 황지우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예종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을 비롯해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학교 안팎에서 많은 말들이 어지럽도록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면 '한예종 사태'는 현재,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행정감사 결과처분요구서 전달 이후 4주의 이의제기 시한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예종 사태'에 관심이 깊은 분들이라도 어떤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따라서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이 책으로 묶어 냈습니다.

표면에 두드러진 문제였던 교권침해성 문화부 감사의 부당함, 한예종의 일부 교수들에 대한 색깔 공세와 이론과 실기교육을 분리하라는 주장의 허무맹랑함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필진들이 잘 다루고 있으므로 침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예종 사태'가 몇몇 교수들과 일부 교육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족시부터 이념 성향을 강조한 문화예술단체와 일부 사립예술대 재단들은 국립 예술종합대학의 존립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며 한예종의 완전한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관련 인사들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문화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그들이 제시했던 한예종 해체 플랜의 제 1단계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 자체입니다. 한예종은 입시의 획일적인 틀에 담기지 않는 꿈과 재능이, 과중한 등록금 부담 없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종합예술대학입니다. 이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또한 '한예종 사태'는 현 정부의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고, 인재 양성이라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2008년의 금융위기로 그 한계를 드러낸 시장만능주의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태에 학생 및 시민단체들과 언론, 학계가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사태의 쟁점도 문화부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외에도, 후임 총장 선출과정에서 대한 외부의 개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한 학교 해체 시도를 막기 위한 긴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한예종의 학생들과 비대위는 학교를 온전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예종은 만들어진 지 20년도 지나지 않은 작은 학교이며, 힘으로 여린 싸움 짓밟기란 언제나 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품위와 상식, 교양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부수지 못하도록 뜻을 모아 주십시오. 추후 추가되는 정보와 구체적으로 도움주실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선 아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7일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

<http://cafe.naver.com/knuattheory>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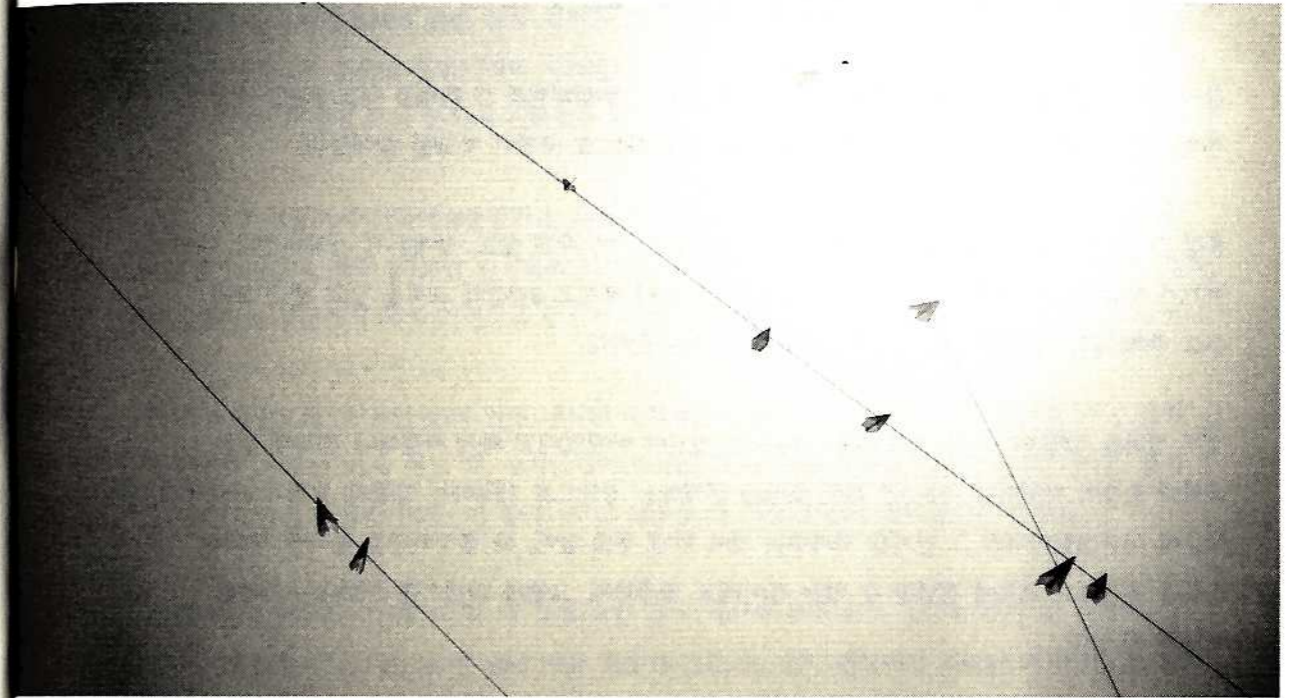
1부

- 06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 기자회견문
- 08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발기문
- 09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 12 정당한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감사결과를 반대한다
- 16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성명
- 18 협동과정 성명서
- 20 성명서 : 왜 서사창작과인가?
- 23 유인촌의 상상력을 반대한다 연극원 극작과 졸업동문 성명서 리모델링이 아니다, 대들보를 없애자는 거다
- 25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다
- 28 한예종 감사 처분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 35 (사)문화미래포럼과 유인촌 장관의 '좌파 적출'의 일환인 '한예종 죽이기'
- 44 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파괴 시도 중단하라!
- 45 공개질의서 - 신재민 차관에게 묻는다
- 46 한예종 사태일지
- 48 성명서
- 49 언론보도 목록
- 50 일정

2부

- 52 애도문 - 연극원 연극학과
- 54 만화 - 박솔잎
- 55 나는 왜 이론과에 왔는가 - 이민희
- 56 내가 한예종에 온 이유 - 장효주
- 58 나에게 이론이 필요한 이유 - 손성민
- 59 이곳의 계절은 다만 푸른 봄 - 서지호
- 60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부는 하기 싫고 그림만 그리고 싶었던 나는... - 김다정
- 61 나는 왜 예술이론을 배우지? - 이지현
- 63 1인시위 나가셨던 어머니의 후기 - 최인선
- 65 한예종에 이론과가 필요한 이유 - 이지현
- 69 왜 영상이론인가 - 탁은창
- 71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에 대하여 - 장미솔
- 74 동시대 예술현장에서 창작과 이론의 상보적 관계가 왜 중요한가? - 김정복
- 76 한예종 사태에 대한 essay - 박해성
- 79 만화 - 박솔잎
- 81 학교소개
- 83 학생 비대위 정보

1부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 기자회견문

참 이상한 감사였다.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 감사를 받았는데 10명의 감사자들이 6주 넘게 투입된, 집중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이런 '용단 폭격식 감사'는 학교 설립 17년 연혁 가운데 그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감사 후반기에 접어들자 이번 감사의 최종 도착지가, 1) 총장퇴진과 2) 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이 노골화되었다. 3월 초 문화부 모 국장이 학교를 찾아왔다.

총장 거취,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고, 언제든지 사퇴하겠다. 다만 여기가 학교다. 3200여명의 학생이 있고 그 학부모들이 계시고 4년간의 교육을 믿고 맡긴 교육 수요 주체(국민)와의 약속과 신뢰가 존중되어야 하는 곳이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여느 소속기관과 다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대나 경북대 같은 국립대 총장이 바뀌어야 하는가? 대학 총장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능하는 일종의 상징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의 그 임기를 지켜주는 것이 학내 동요 없이, 또 총장퇴진을 둘러싼 사회적 소음을 차단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가 돌아갔고, 이내 감사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환영했다. 종합검진처럼 잘 받으면 그만 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건강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 검진이 아니라 생체 해부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갔다. 감사 기간 중 내가 제일 우려한 것은 총장퇴진을 압박하는, 나에게 대한 오물 뒤집어 씌기가 아니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심각한 것은 감사의 과녁이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예종 학사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감사팀의 최종 확인서 28건 가운데 1/3이 넘는 10건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제, 5월 18일 저녁 6시에야 문화부로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이 요구된 문서 가운데 U-AT통섭교육 중지, 이론과 축소/폐지, 서사창작과 폐지 등 상당수가 대학 교육의 자율성과 본교의 교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감사 기간 중 이에 대해 사실과 교육학적 근거에 의해 소명한 내용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교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이에 적극 대응해 갈 것이지만, 이미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밟고 가려는 문화부의 저돌성이 위협스럽기까지 하다. "이론과를 폐지하고 실기교육을 강화하는 등 한예종 구조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당 국/실에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 감사관 발언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예산집행이나 행정절차에 관한 감사 지적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섬세하고 특수한 예술교육 분야에서 아카데미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행정관료들이 손보려 하다니, 나는 거기서 파생될 우리 문화의 전반적인 반달리즘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국내외 우수 콩쿨, 각종 경연에서 1위 수상자만 473명에 이른다. 특히 2006년 김선욱의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 이래로 음악, 무용, 건축, 영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세계 최정상상을 등정하고 온, 그야말로 '창조적 소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 교육만으로 그 동안 우리 안에 내재된 세계성을 입증하는, 경이로운 성과들이다. 나는 감히 말하건대 본교는 이제 어느 덧 세계급대학(World Class Univ.)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설립 17년밖에 안된 한예종이라는 이 황금나무의 苗板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제 내 것 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소중한 해야 할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30년 넘게 미학 책을 읽었고, 또 창작 현장에서 자라난 더듬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시대 예술이 어디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예술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꽤나 암중모색했다.

지난 3년간 총장으로서 나는 우리 예술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더 앞으로 점프해서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비전을 한예종 제2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 무진 애썼다 하겠다. 내 역량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퀀텀 점프를 위한 시도가 지금 문화부 감사에 의해 완전히 봉쇄된 지경에 이르렀다.

식물 상태에 빠진 총장직에 앉아 있다는 게 더 이상 의미도 없고, 무엇보다도 나로 인하여 본교에 물려 있는 수업을 털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나는 결심했다. 다시금 우리 사회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 시간이 도래한 것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직을 사퇴한다. 다만 3년 전 본교 교수님들의 민주주의적 총의로 세운 총장직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학교연혁에 중도하차라는 흉터를 남기게 되어,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따름이다.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발기문

지난 19일 황지우 총장님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은 학생들에게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는 '서사창작과 폐지, 6개원 이론과 축소/폐지, U-AT 통섭교육사업 전면 중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예술교육 기관으로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행정적인 시정 조치만이 아닌, 교육관과 관련된 구조 조정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대학의 자율권이 이런 식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가.

이론 없는 실기는 없다. 협동과정은 새로운 장르를 빚어내는 현재 예술 흐름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 교육 주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의심치 않기에 다양하고 통합적인 이론 교육을 배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 과정 재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의 문제가 학생과 교수, 학부형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채 집행되려는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섬세해야 할 예술 교육을 관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협한 발상인지를 절감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6개원 이론과를 비롯한 협동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조정의 희생양이 된 '예술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장님 사퇴 표명 이후 영상이론과 비대위는 지난 21일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기구준비모임을 주최하였다. 450명 가량이 참석한 논의 끝에 35명의 발기인을 두고 '한예종 학생 비상 대책 위원회' (이하 학생 비대위)를 발족할 것을 결의했다. 학생 비대위는 위원장과 집행부를 두고, 학내 다양한 자치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교수협의회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방안으로 제시한 '비상연석회의' 구성에서도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실천 기구로서, 학생 비대위는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더 나은 예술 교육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5월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 35명 발기인 일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1. 한예종 사태 개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매 2, 3년에 한 차례 10일 안팎의 정기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18일 시작된 종합감사는 이례적으로 40여일 이상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문화부는 결국 지난 5월 18일(월) 감사결과를 통보해 황지우 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및 이론과 축소/개선, 서사창작과 폐지, U-AT 통섭교육 중지 등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튿날인 19일 황지우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부가 제기한 중징계 사유들에 대해 해명하고 "유례없는 용단폭격식 표적감사였으며, 감사 결과의 상당수가 대학 교육의 자율성과 본교의 교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본교에 물려 있는 수업을 덜어줘야 한다"며 총장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한예종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감사결과와 일부 언론의 논평을 종합했을 때, 한예종의 근간을 흔들려는 모종의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뉴라이트 인사들이 결집한 '(사)문화미래포럼'은 오는 27일 심포지움을 열어 한예종 개혁방안 및 설치령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소위 '좌파'로 분류된 교수들을 축출하고 음악학, 연극학, 영상이론, 무용이론, 미술이론, 한국예술, 예술경영, 서사창작 등 이론과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시킨 후, 최종적으로는 한예종을 전면 해체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 정부와의 친연성을 고려하면, 문화부 감사결과가 바로 문화미래포럼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첫 신호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한예종 학생비대위 결성과정

황지우 총장 사퇴 표명 직후, 감사결과가 미칠 파장이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이론과와 협동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예종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과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학교를 지키자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이론과 비대위가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21일(목), 학생 비상대책기구 출범을 위한 전학생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약 500여명의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한편, 대응방법을 숙고하였습니다. 회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다수의 자발적 주체들이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열띤 토론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성된 비상대책기구의 방향성, 당면 현황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대책 수립 등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결국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생비대위) 발기인 35명이 선출되었고, 조직 구성과 방향성 수립을 위임받은 발기인들은 밤새워 발족을 준비했습니다. 22일(금) 오전 11시, 석관동 본부건물 앞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낭독된 발기문에는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와 부당한 감사로 빚어진 피해에 맞서기 위해 구성된 학생비대위의 역할 및 실천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비대위는 제2차 발기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현 사태에 대한 인식과 실천 차원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어떠한 입장 차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현 사태에 대한 전면적 공동대응에 합의, 방성혁 총학생회장과 예술경영과 김영진 학우를 학생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실무기구로 홍보팀, 정책팀, 운영팀, 협력팀, 예술행동팀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총학은 학생 대의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재확인 받고, 학생비대위는 현사태에 관해 전체 학생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3. 현사태에 대한 한예종 총학과 학생비대위의 공동입장

총학과 학생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 주도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문화부가 편승, 산하기관인 한예종을 시험대로 삼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합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정부가 재정수지와 취업률 등 국정지표 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만이 절대선'이라는 단순 경제논리로만 보면 쓸데없지만, 전체 대학 중 14.5%, 학생 수로는 18.7%에 지나지 않는 국공립대학은 통폐합 대신 육성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열악한 시설과 기자재, 부실한 교육과정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일부 사립예술대학 학우들을 보면, 문화미래포럼 소속 예술대 교수들의 한예종 해체 및 민영화 주장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재단전입금 확충 요구 등은 외면한 채 한예종 해체로 얻게 될 반사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저들의 주장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교육 선진화 및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적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화부가 저들의 농간에 휘둘러 한예종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교육 공공성의 포기이자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주체의 학습권과 교권을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드인사 논란이나 정치보복 문제가 재차 이슈화됨으로써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총학과 학생비대위는 학내 구성원 및 동문, 학부모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한예종의 교권과 학습권을 지켜내고, 이번 사태로 침해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립예술대학 한예종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이론과와 협동과정을 포함한 한예종의 현재 구조와 중장기 발전계획이 본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21세기 창의적 예술인 양성에 필요불가결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장기적 안목의 문화정책 및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학생 및 교수단체, 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다각적 연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각 언론매체의 사실에 근거한 품위있는 보도를 요청하고, 사태의
 오도 및 악의적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학내 모든 구성원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교내의 문화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런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학내 전산망, 카페, 블로그, 소식지, 대자보, 선전물, 홍보부스 등 모든 통로를 동원해
 학우 여러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삼천 예종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춤추는 자는 춤으로, 노래하는 자는 노래로, 그리고 몸짓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글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2009년 5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장(공동) · 총학생회장 방성혁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장(공동) 김영진

정당한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감사결과를 반대한다

40여 일에 가까운 유례없는 저인망식 표적 감사를 감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8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본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감사결과는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부당, 이론학과 확대 운영 부적정, U-AT 통섭교육 사업 추진 부당, 예술학교 협동과정 운영부당 등 총 12개 항목에 걸쳐 주의, 개선, 시정 및 징계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서 및 처분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본교 교육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왜곡하고, 본교 교수들의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며, 21세기 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감사를 빌미로 학교의 미래지향적인 교육 사업들을 좌절시키고, 교수들의 정당한 교권을 짓밟고, 본교 교수들의 충의를 통해 선임된 총장을 좌파 코드인사로 몰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본교 교수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결과의 내용만 놓고 보면 작년 9월 어느 특정 단체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고, 본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감사가 본교 정체성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감사 처분 요구서의 주 내용에 대해 본교의 해당 기관과 교수들은 사전에 확인서를 통해 대부분 해명한 바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소명 내용을 거의 무시한 채 마치 사전에 정해진 감사의 방향이 있었던 듯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론과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처분 내용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 건'에 해당되는 교수들은 대부분 해당학과의 전공 요구내용과 학위 전공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교수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연구경력을 미루어 볼 때 임용에 전혀 하자가 없는 전문성을 획득한 경우이다.

또한 이론학과 확대 운영 부적정 지적 역시 터무니없다. 감사확인서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예술 실기와 이론의 연계는 설치령(2조)에 정한 의무에 속하며, 이론학과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은 전교생의 10% 미만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확대 운영 운운은 사실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예술의 실기와 이론이

다양하게 접목되는 새로운 예술창작 환경에서 이론교육의 제도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이론 없는 실기 교육의 충실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만에 하나 처분 요구서대로 이론학과가 축소될 경우 관련 학과의 재학생, 동문, 학부모들이 입게 될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U-AT 통섭교육 사업 추진 부당과 협동과정 운영에 대한 지적 및 처분 요구 역시 심각한 교권침해라 할 수 있다. 당초 U-AT 통섭교육 사업은 급변하는 예술현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사업이 중도 좌절되었음에도 좌절시킨 당사자가 사업이 부실하니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이미 해외 유수의 권위자로부터 통섭교육사업의 중요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고, 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로는 아무런 손색이 없는 연구결과물을 외면한 채 어떤 근거로 통섭사업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 지 궁금하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심광현 단장과 전수환 부단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만할 정도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협동과정은 예술의 융복합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며, 예술경영, 서사창작, 음악극창작 등이 그 대표적인 전공사례라 할 수 있다. 협동과정은 본교의 경우처럼 전국 대학에서 학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며, 단지 통합적인 교양과정만이 아닌 융합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영학과와 서사창작과의 독립적 학과 운영을 마치 그 유례가 없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감사 확인서에도 없었던 서사창작과 폐지안이 해당과 교수인 황지우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5월 19일 본교 황지우 총장은 감사의 부당한 압박에 항의하기 위해 사퇴를 결행하였다. 전체 교수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총장이 임기를 마쳐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게 된 이 현실은 모든 교수들과 재학생 동문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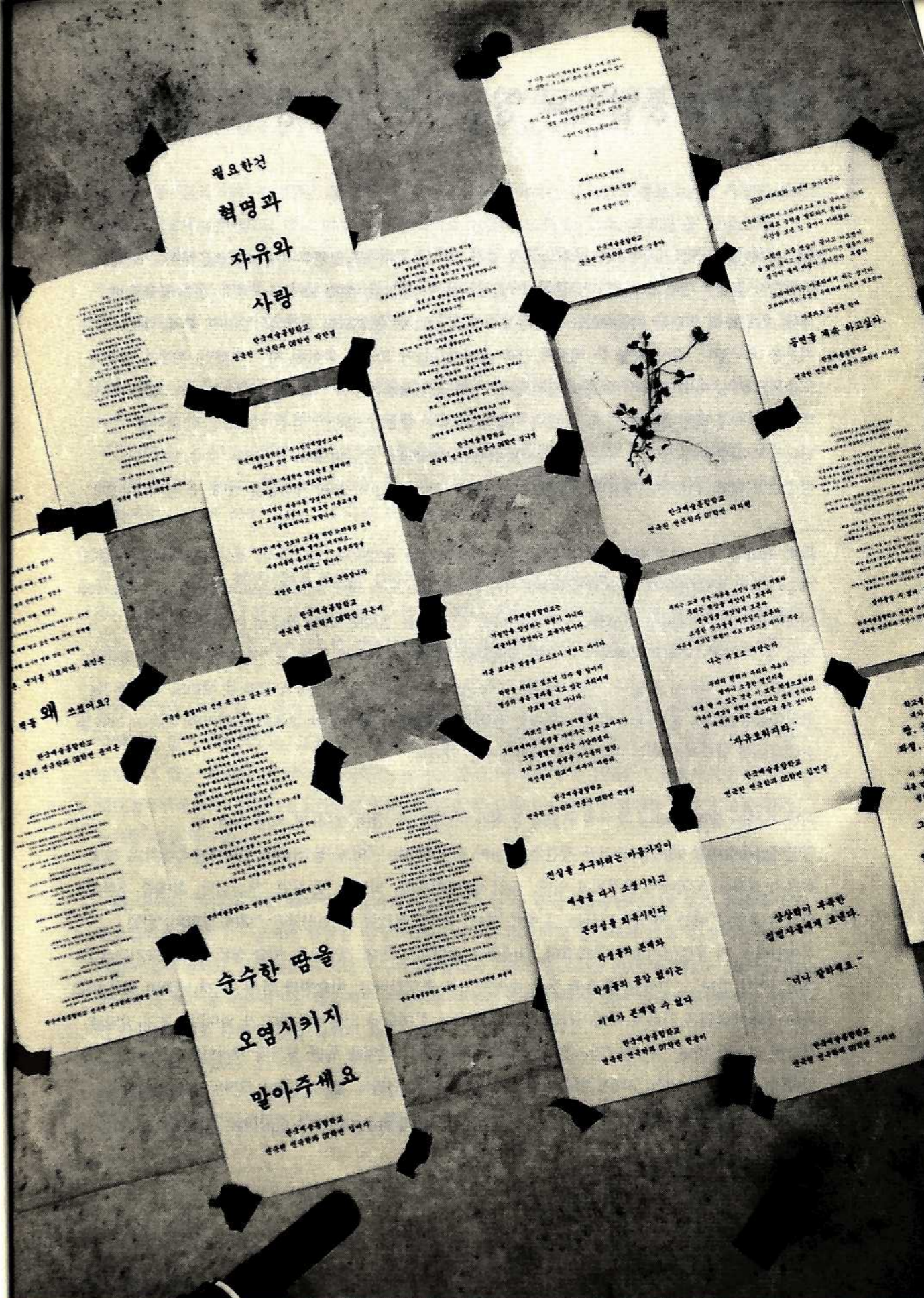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국립대 총장이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본교 교수협의회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의 올바른 교육비전과 교육철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서와 처분요구사항들은 상당 부분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고 있어 본교의 교육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시대식 정치논리에 휘말려 정작 중요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있다.

물론 감사의 지적 사안 가운데 행정적 운영 미흡에 따른 개선 사안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서와 처분 요구사항들은 행정적인 보완의 수준을 넘어서 학교 전체의 행정적 권한과 교원의 권리를 본부가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개선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학교의 교육정책을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학내 구성원들 모두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호소한다. 또한 본교의 정체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흔드는 어떠한 형태의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최근 특정 인터넷 매체에는 오는 5월 27일 어느 단체가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본교의 구조조정을 위한 '설치령' 개정을 주장할 것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외부의 세력이 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수, 학생, 교직원인 연대하여 강압적인 학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비상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교 재학생, 동문,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본교에 대한 강압적인 구조조정과 교권침해를 중단하라.

2009년 5월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협의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성명

5월 18일(월) 저녁, 이례적으로 무려 6주에 걸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기습 통보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통보를 통해 황지우 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징계 및 이론과 축소/폐지, 서사창작과 폐지, U-AT 통섭교육 중지 등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과정 중 제시한 각종 소명자료들이 모조리 묵살된 채 우려했던 최악의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문화체육관광부가 솔선수범해 온 소위 코드인사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사립대 예술학과 교수 출신인 장관이 일부 이해집단의 요구를 편파적으로 수용한 결과는 아닌지, 또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주축으로 하는 현정권의 대학 구조개편 계획의 시험대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이론관련 학과는 음악학과, 연극학과, 영상이론과, 무용이론과, 미술이론과, 한국예술과, 예술경영학과와 서사창작학과로 모든 원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예술사와 전문사를 통틀어 상당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각 학과는 적박한 현실 가운데 이론, 비평, 기획, 경영 등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동시에 예술 실기교육에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성과와 가능성을 외면하고, 또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도 배제한 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과 운영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학과나 교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원의 분리 및 지방 이양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해체를 둘러싼 저간의 풍문이 현실화되는 서막에 불과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해체 음모의 징후는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19일 밤 변희재의 '빅뉴스'에 실린 "부실집단, 한예중 개혁의 깃발이 올랐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그 좋은 예다. 문화미래포럼 측 인사들은 "대체 영화의 영재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 한예중은 정확히 스쿨의 개념으로 예술 실기 영재교육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연극원, 무용원 등은 음악원으로 통합하고, 미술원과 함께 두 개 단과면 충분하다, 특히 전통예술원은 기존의 국립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한예중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심지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예중의 개혁을 위한 설치령 개정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도대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어떤 연관도 없는 이들이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친절하게 어느 원을 살리고 죽일지까지 혼수하는 방약무인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입맛대로 개정되어 거대여당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저들이 교수로 또는 총장으로 부임하는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마져 돋는다.

이에 영상이론과 재학생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납득키 어려운 감사결과 통보조치로 촉발된 일련의 상황을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이래 초유의 위기로 진단하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모든 주체들이 힘과 슬기를 한데 모아 이 위기에 공동 대처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해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작금의 사태를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학생총회 개최와 예술사·전문사 과정의 모든 단위를 망라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영상이론과 재학생 일동은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외압에 의한 일체의 인위적 교육과정 폐지/축소 시도에 대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의 연좌농성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연히 맞설 것이며, 부당한 감사를 기획하고 수행한 책임자들과 이를 배후 조정하고 있는 불순한 정치세력에 대한 민·형사 및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일개 행정행위에 불과한 산하기관 감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닌 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학과명을 적시하면서까지 교육과정 폐지를 요구한 국내외 유례가 있는지, 또한 이런 조치가 과연 교육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과의 축소 내지 폐지라는 중대 사안이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어떠한 사전논의나 양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감사결과와 '비공개' 방침에 따라 언론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결과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이론학과를 폐지하고 실기교육을 강화하는 등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구조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은 해당 국·실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최종학 감사관의 언급에서 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관료 주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구조개편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전문연구조사 및 학내외 공청회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장기 발전방안을 새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5월 19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비상대책위원회

협동과정 성명서

5.19일 갑작스런 본교 황지우 총장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다. 본교를 타겟으로 한 외부의 움직임은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학생들 역시 그간의 일을 몰랐던바 아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왔다. 바로 어제까지 말이다. 설치령의 이름으로 나라 법에 규정되어진 학교의 설립이 이렇듯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감사의 결과 통보는 거대한 전복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일 뿐이다. 황지우 총장은 이에 대한 경중을 올리고 사퇴했다. 이는 총장 개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총장자리 다음에는 학교를 내놓으라고 할 판이다. 우리는 국립예술학교의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주권을 강탈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한예종은 기존의 예술교육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교육부가 아닌 문화부에 소속된 예외적인 교육기관이다. 시기도 구설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술'이었다. 짧은 기간 실력으로 이룩한 성과는 누구도 쉽사리 폄하할 수 없을만큼 대단하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단지 학교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20일 교학협의회를 통해 학교 측에서는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과 연구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전했다. 17년동안 다져온 토대를 6주만에 무위로 되돌리려는 불순한 시도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야 마땅한가. 이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본교 학생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성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것인가.

현재, 18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학교에서는 대응팀이 꾸려진 상태다. 당장 한달 안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문제가 된 12건 중에 6건은 세밀한 지칭에 대한 교정과 강화의 문제다. 그리고 교수나 총장의 신상 관련 문제가 1건,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나머지 5건이다. 여기에는 단적으로 이론과 축소·폐지 서창과 폐지 등의 조항이 있다. 이는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기본적인 제량권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권이 침해당했음은 명백하다. 그들의 논지는 몇몇 과들이 실기 교육에 방점을 뒀야 한다는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에는 실기학습을 중심으로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여 인재를 만들어 낸다는 문구 역시 명시되어 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감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관점을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한 달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후 우리는 그들의 통보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감사 결과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경우 문화부에서는 설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공청회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순간의 안일함에 난도질당할 학교의 모습은 상상되고도 남음이다.

협동과정의 경우 현재 완전한 시스템의 구축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장기 계획으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정부 예산의 삭감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어 보지도 못하고 U-AT랩은 폐지되었다. 성과물의 퀄리티가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준도 심사 위원도 모호하다. 어쨌든 그로인해 협동과정의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삭감 역시 감사 이후의 폐지 조치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애초에 협동과정은 원 단위로 구성되어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본교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여러 과와 구성원 간 의 허브 역할을 지향해왔다. 실제로 협동과정에서 개설되어 저 통합 교과로 운영되는 모든 과목이 특정 원을 망라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실기와 이론의 상호작용이 이뤄져야만 각성된 예술 작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예술의 완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지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도 협동과정의 존재이유다. 무엇보다 협동과정은 기존 장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이질적인 예술 체험으로 새로운 시대, 색다른 예술 장르를 모색하려는 시도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실기과 위주의 재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근시안적 태도를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내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WCU(World Class Univ.)가 아닌 WLU(World Leading Univ.)다.

항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학교의 해체방안과 해체 후의 분배문제에 대한 컨텍스트는 단지 근거없는 소문이 아닌 신빙성 있는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언서처럼 이상하리만큼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시나리오의 한예종의 전복으로 끝난다. 눈뜨고 당할쏘냐, 학교의 얼굴은 학생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모든 학우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주길 호소한다. 단결된 의식이야말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이다.

2009년 5월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동과정 학생회

성명서 : 왜 서사창작과인가?

지난 19일 황지우 총장님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화부는 몇몇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협동과정 해체 및 통섭교육 폐지, 이론과 축소/폐지, 서사창작과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교권 침해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일개 과의 폐지를 요구한 사태에 대하여 서사창작과의 입장을 밝힙니다.

왜 하필 서사창작과인가?

서사창작과는 교내에서도 최소 정원입니다. 전문사를 포함해도 총 정원이 서른 명이 채 안 되는 학과입니다. 이 조그만 과를 정부는 왜 지목한 것일까요?

협동과정은,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현대 예술의 경향을 반영해, 6개원을 가진 예술종합학교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르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수업(글쓰기, 플롯구성워크숍, 성격창조워크숍)과 인문학적 베이스를 제공하는 수업들(예술의 산책 및 각종 통합과목)을 6개원 전체에 개방하고 있으며, 음악극창작과와 예술경영과, 서사창작과처럼 하나의 장르로 묶을 수 없는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서사창작과는 다양한 매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창작하기 위한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7년에 개설되었습니다.

한예종의 장기적인 융합예술교육 계획에서 협동과정은 그 포석이었으나, 그것이 궤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고, 한예종의 거시적인 교육 계획을 저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장 먼저 축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학교 존립 자체를 흔들겠다는 경고이고 이는 앞으로 학교 전체를 건드리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재차 말하자면 '한예종을 실기위주로 재편성하려는 조짐'이 구체화되어 첫 발을 댄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총탄 한 발 : 한예종 죽이기

전문사 학위인정을 위한 설치법 개정을 좌절시킨 것을 비롯해, "한예종 죽이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MB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을 해체 및

축소하여 타 교육기관들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작년 하반기 학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터넷 신문 KNUAN, '한예종 괴담을 믿습니까?' 참조) MB 정부는 출범 이래 계속해서 아직 임기가 남은 문화예술 기관 인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끝끝내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마저 표적 대상이 된 것입니다. MB 정부의 한예종 대책 중장기 플랜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사퇴 추진과 예산 삭감입니다. 실제로 회계 교비 단일화, 즉 국고 보조가 줄어들어 따라 그 동안 한예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삭감이 진행되어 왔고, 올해 한예종 UAT 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5월 19일 "본교에 물려 있는 수업을 덜기 위해서" 황지우 총장이 사퇴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금의 사태, 표적 감사와 아우른 서사창작과 폐지와 이론과 축소 및 폐지, 협동과정 폐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속칭 "한예종 괴담"으로 불리는, 6개원 해체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한낱 루머나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일이 아닌 것은, 2005년 발족한 이후로 한예종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과 뉴라이트 계열의 '문화미래포럼'이 한예종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제발표회를 공동 주관으로 계속 진행시켜 왔고, 최근 문화부의 감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문화미래포럼'이 "연극원, 무용원 등은 음악원으로 통폐합하고, 미술원과 함께 두 개 단과면 충분하다, 특히 전통예술원은 기존의 국립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한예종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그 속셈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3일, 예교련과 문화미래포럼의 공동 주관 아래 진행된 주제발표회에서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정재형 교수는 "한예종은 지난 정부의 실패작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예종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예종 설립이 당시 국내 예술대학 풍토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어 국내 예술대학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했으며, '사실상 종합대학체제'로 불릴 수 있는 한예종의 '6개원 체제'는 구 공산권 나라인 중국, 소련의 몇 곳을 제외하곤 선례가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각 원의 이론과 및 협동과정은 물론 타 예술대학과 중복되는 모든 전공을 폐지하고, '대학'이 아닌 조기영재교육만을 담당하는 본래 취지를 살린 '작은 대안학교'로의 전환" 등을 주문했다.

서우석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는 "해체를 우리가 직접 주장할 필요 없이 정부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된다"며, 다만 "해체 이후의 인력과 기자재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자"며 '후속 모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준모 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은 "과거 수도공대가 홍익대에, 서라벌에다가 중앙대에 넘어갔듯이, 해체 이후의 배치 걱정을 하지 말라"며, "부분 인수할 대학도 많고, 입찰을 붙여서 띄워주면 간단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유인촌의 상상력을 반대한다 연극원 극작과 졸업동문 성명서 리모델링이 아니다, 대들보를 없애자는 거다

여러분은 여러 성명서에서 이것이 '서사창작과'와 '여러 이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며, 때문에 이것을 방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을 단결 슬로건 정도로만 읽고 계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아프니 조직의 일부인 너도 같이 아파야 한다는 으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한예종을 둘러싼 문화예술계의 해묵은 알력이 얽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전초전에 가깝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정권의 취향보다 우선합니다. 대학의 교육 과정을 실용주의에 물든 관료와 이해관계에 얽힌 외부인들이 휘두르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학교의 존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물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이나, 식물 총장이길 거부하며 사퇴하신 황지우 총장님을 보고도 우리가 식물 노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절절한 가슴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가슴에 묻습니다.

우리 서사창작과 학생 일동은 교육 주체인 학생의 권리와 예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학우 여러분들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예종의 학우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동과정 서사창작과 일동

2009년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유인촌)가 통보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본교) 감사 결과에 반대한다. 유인촌은 40여일에 가까운 저인망식 감사를 벌인 뒤, 황지우 총장의 근무지 이탈, 통섭교육 부실 운영, 이론학과 확대 등을 근거로 본교 구조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다. 김윤수 전 국립미술관장, 김정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이어 내년 초가 임기인 황지우 총장마저 퇴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인촌은 근심에 찬 얼굴로 본교를 돌봐주는 척하며, 이른바 '좌파 인사' 척결을 명분으로 한 도미노 게임을 즐겁게 관망하고 있는 듯 하다. '근무지 이탈', '사진전 미개최' 등 황총장 증징계와 관련해 유인촌이 제시한 웅색한 근거를 봐도 그렇고, 본교 구조조정을 빌미로 내놓은 엉뚱한 대안을 봐도 그렇다. '협동과정 폐지' 및 '통섭 교육 중단'은 황총장의 총장직과 더불어 교수직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의도이며, 예술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특히 '실기 중심 학교에 이론과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은 소위 '문화'를 담당하는 정책자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통섭 교육 중단 역시 마찬가지다. 인류 역사상 문화와 예술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웠던 고대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를 보라. 그리고 당대 예술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영향 받았는지 보라. 예술은 고립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마술이 아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이 끊임없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내는 무엇이다. 우리는 춤추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펜을 든 사람, 카메라를 든 사람, 붓을 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 무엇에 앞서 우리는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다. 철학 없는 예술은 기술에 불과하다. 예술 작업이 풍요롭고 유의미해지기 위해, 세계를 향한 질문이 더 두터워지기 위해 각 분야의 '협동'과 '교류', '통섭'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런데 유인촌은 어부에게 '그물망'이 왜 필요한가를 물으며 '낚시대' 하나만 쥐어준 채 어업의 본분을 다하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그물망을 짠 사람들을 모아다 벌주려 한다. 당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묘소에 달려가 망자의 컴퍼스와 삼각플라스크를 빼앗으며 "당신은 화가니까 그림이나 그리시오!"라고 외칠 모양새다. 그들은 본교를 리모델링 해준다면 대들보를 빼내려 한다. 그러고는 무너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교양의 문제다. 우리는 폐쇄적인 기술자가 아니라 개방적인 예술가가 되기를 원한다.

과거, 황지우 선생이 수업 시수와 상관없이 7시간 이상씩 열강을 하거나,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모아, 대가없이 한 달 간 '명작읽기' 수업을 꾸린 일화는 유명하다. 그를 위시한 본교 교수들이 예술가가 성장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건 황총장의 무능이 아니다. 진정 건강한 교육 환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르는 저들의 무능이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상상력, 우리는 이런 걸 과대망상이라고 부른다. 그 일관성에 박수를, 그 치졸함에 연민을 보낸다. 당신들의 상상력에 반대한다.

2009년 5월 2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졸업동문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다

1. 문화미래포럼의 근거 없는 주장들

“감사 항목들이 문화 미래포럼이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등 문화계의 뉴라이트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동일하다.”

황지우 총장의 사퇴 기자회견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이다. 10여 년 전 나라에서 설립한 국립예술학교가 문화미래포럼이라는 사적 단체의 발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이미 설립 목적부터 정치성과 이념이 개입된 단체에서 예술의 순수성을 위해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러한 사적 단체는 한예종에 '좌파 학교'라는 딱지를 붙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단지 몇 교수의 정치적 이념만을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누군가가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존중되어야 하며 이권을 얻기 위한 마녀사냥식의 논지는 용인될 수 없다.

문화미래포럼의 정진수 대표 등 소속 회원들은 발언과 문건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판하면서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예종은 지금까지 문화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교육기관이다.

제3조 (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1.1.29,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이 여타 종합학교와는 달리 예술학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위탁받았을 뿐이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이들의 주장처럼 국립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면적 구조개편, 나아가 축소 및 폐지를 시행 할 경우 엄연한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그들은 무슨 권리로 월권을 행하는가. 학생들도 외치지 않는 학교의 개혁을 외칠 권리가 과연 그들에게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해되지 않는 월권행위는 학생의 이름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될 사안이다.

2. 두려울 수밖에 없는 차기 총장직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현 전 문화예술위원장, 국립오페라단합창단
그리고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부 각 부처의 요직들에 대한 교체는 정부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 기관장들을 줄줄이 해임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문화부는 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 창조성과 자생성을 높이는 정책목표를 내세우며 합법적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기관장들을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압박했고, 사실상 현 정권과 정치적 뜻이 같은 인사들을 새 기관장으로 임명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광수 중앙대 명예교수는 팔림 대안공간인 인사미술공간의 대부분의 기능을 축소시켰으며, 미술관의 기획전시는 정지시켜 버렸다.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는 미술계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대우전자 회장이었던 배순훈 씨를 임명하여 문화예술을 오로지 시장가치로만 보며 경제 부흥의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성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이 노골화되었다”, “나로 인하여 본교에 몰려있는 수업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총장직을 사퇴한다”는 말과 함께 총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이 공석을 채울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인사진행으로 볼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차기 총장이 누가 될 것인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3. 이론과는 계속 되어야 한다.

“연극의 목적이란 최초에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현재에나 이를테면 거울을 들이대서 자연을 비추는 것이요. 그리하여 미덕과 악덕에게 각각 그대로의 모습과 형상을 보여주는 일이며, 시대의 참다운 연륜과 몸매에 그것의 형체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거나 미흡하면 비록 그것이 분별력 없는 관객들을 웃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분별력이 있는 관객을 탄식시키게 되요. 단 한 사람의 식견 있는 관객의 평은 당신들의 연기에 대한 호평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극장을 채운 오합지중의 관객들 전부의 칭찬보다도 무게가 더 있소.”

- 셰익스피어의 ‘햄릿’ 中

셰익스피어는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라 했다. 문화부의 이론과 축소 및 폐지안은 시대의 거울역할을 하는 예술이 제대로 거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조장하는 행위이며, 진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식견 있는 평의 싹을 말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요구하는 이론과 축소 및 폐지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 그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음흉한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는 하나의 반증이다.

‘스타니슬라브스키’, ‘아프닝 아르포’, ‘그로토프스키’, ‘메이어홀드’……. 이들은 세계적인 연극연출가들로서 현대의 대표적인 연극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연출가의 현장 작업과 그로부터 이론이 창출되는 흐름은 현대연극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러므로 이론과 예술창작은 동떨어져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는 매듭처럼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생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오태석, 이운택 등의 연출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메소드를 이론으로 정립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술이론의 기반이 탄탄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문화권에서 예술이론을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은 자명하다. 국립예술학교에서 각 원마다 이론과를 두어 예술현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론가를 양성한다는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면, 앞서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행해온 예술교육이 자생적인 이론을 생산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지를 자문해 보기 바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일동

한예종 감사 처분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김채현 (본교 교수협의회 의장 / 무용원 교수)

1. 감사 처분과 전체 교수진의 결의

지난 18일 본교에 전달된 감사 처분 통보서에 대응하여 총장은 사퇴를 결행하였고 본교의 교수진 전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부당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철회 요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였다.

이 결의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감사는 대학의 자율적인 교수·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 과학기술부에 요청한 총장 중징계의 사유는 원천적으로 부당하다. 3) 감사 처분서에 실명 거론된 일부 교수들의 중징계는 이유가 없다. 또한 4) 감사 처분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처분서에 없는 내용들까지 언론에 유포되는 비정상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5) 일부 신문과 특정 인터넷 매체가 학교의 일부 교수들에 대한 이념공세에 나서는데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6) 향후 본교가 마련할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World Leading Univ.)'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질 입장과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감사 처분서는 모두 12개 사항의 징계, 개선, 시정, 주의 사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2개 사항은 교권 차원의 처분과 업무 개선 차원의 처분으로 대별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앞의 교권 차원의 처분이다.

교권 차원의 처분 내용은 더 세부적으로 1) 이론학과 축소 2) 전공 무관 교수 초빙 3) U-AT 통섭 사업 중단과 연관 교수 중징계 4) 서사창작과 폐지로 정리된다. 이번 감사 처분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만간 학교 당국이 시정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면 그에 대해 일정한 결말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그럼에도 위의 결의문은 이번 감사 처분의 부당성을 천명하고 있다. 황지우 총장은 사퇴를 선언한 자리에서 이렇게 개탄하였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심각한 것은 (이번) 감사의 과녁이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예종 학사 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감사 처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미루어 이번 감사 처분서는 본교의 존폐와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배제된 채 매우 한정된 감사 처분만으로 학교의 존폐를 좌우하려는 세상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2. 근원적 문제점

1993년 음악원 개원을 필두로 해마다 1개원씩 개원하면서 본교는 6개원과 협동과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길게는 17년 동안, 짧게는 10여년 동안 본교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부한다. 국내 초유의 예술종합학교라는 기관으로서 가파르게 성장할 동안 본교의 행정 역시 조직을 손질해 가면서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 이런 터에 행정적으로 미흡하거나 개선될 사안들이 없지 않을 듯하다. 총장이 사퇴하면서 밝혔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 감사를 처음에는 총장 스스로 본교에 대한 종합검진으로 여기고 흔쾌히 수용한 태도는 본교의 행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언제라도 받아들여 본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본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번 행정 감사는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한예종 학사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추었다. 업무 개선 차원의 처분과 아울러 제시된 여러 처분들은 사실상 교권 차원의 처분에 해당하며, 이런 때문에 교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번 감사 처분에 내포된 1) 예술에 관한 관점, 2) 학사 조직 개편에 관한 처분은 각각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술은 무엇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술 개념은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이나 혹은 어떤 집단이 공감하는 개념이다. 예술은 무척 다양하므로 예술 개념에서 정답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이 예술의 생리이다. 이번 감사 처분서 역시 학사 조직 개편을 강조하는 점으로 미루어 일정한 예술 개념을 토대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 처분서가 우선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에게서부터 공감을 사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저변의 예술 개념이 과연 '적절한지' 되짚어봐야 옳다. 소수의 개념이라도 존중되고 공론의 장에서 판단받을 기회를 응당 부여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예술 개념이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처럼 공감을 사지 못하는 개념은 탈락하기 마련이다.

2) 본교의 행정 운영에서의 미흡한 점은 이번 감사 처분서에서도 지적된 줄로 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학사 조직 개편을 내세우는 것은 다시 말해 행정적 판단이 예술적·교육적 판단을 대신하는 결과를 빚는다. 그렇다면 이번 감사 처분서는 논리의 심각한 비약이라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개들 알아차릴 만한 이 정도의 비약을 무릅쓰고 감사 처분을 고수한다면 '의도적인' 오진(誤診)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오진이 학습권과 교수권(教授權)에 치명상을 가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3. 교권 차원 처분의 문제점

이번 감사에서 내려진 교권 차원의 처분 내용은 다음의 4가지이다. 1) 이론학과 축소, 2) 전공 무관 교수 초빙, 3) U-AT 통섭 사업 중단과 연관 교수 증징계, 4) 서사창작과 폐지.

1) 이론학과 축소 : 감사 처분서는 이론학과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고 축소할 것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선 교수협의회 성명서(이하 성명서)는 이론학과 확대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터무니없는 지적임을 밝혔다. 원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론학과를 축소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협동과정 설치를 이론학과와 확대 오해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협동과정 구성 학과(예술경영, 서사창작, 음악극창작)를 보면 그것이 이론학과와 결집체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본교의 설치령 및 학칙의 제2조에 실기 및 이론 교과와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교 바깥의 일각에서는 이론학과와 연관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실기 전문 교육 기관이므로 이론학과를 폐지하고 혹은 필요한 이론 교과 교육을 강사진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그러한 주장에서 본교의 설립 취지 또는 설립 목적과 연관되어 회자되는 '실기 전문'이 '오직 실기만'을 의미한다면 학원이 실기 전문에 더 적합하고 교육기관(학교)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학원과 학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내 예술대학들은 학원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론 교과를 실기 교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장이와 예술가가 똑같이 고도의 실기력을 갖췄다 해도 둘 사이의 변별점은 생각건대 지성의 높낮이에 있을 터이며, 이런 이른바 문화 지성의 함양에 있어서도 이론 교과와 역할은 막중하다. 고전예술을 비롯하여 예술교육에서 원천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이론 교과와 중요성은 지식 정보 시대에 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해외 사례들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해도 좋을 듯하다.

국내 예술 교육의 이전부터의 오랜 동향으로 미루어 이론 교과가 충실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제부터 전반적으로 이론 교과를 더 강화하는 것은 국내 예술의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 할 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론 전문가를 육성하는 이론학과가 본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수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전공 무관 교수 초빙 : 성명서는 이에 대해 "처분 내용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 건'에 해당되는 교수들은 대부분 해당 학과의 전공 요구 내용과 학위 전공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교수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연구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임용에 전혀 하자가 없는 전문성을 획득한 경우이다."고 밝히고 있다. 교수의 전공 일치 여부에 관련하여 해당 학과의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 초빙 과정의 건을 어떤 인맥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거나 이는 전공 편제, 교육 내용, 학습권자의 요망 등을 외면하고 피상적으로 오해한 결과이어서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3) U-AT 통섭 사업 중단과 연관 교수 증징계 : 우리 학교가 개교를 시작한 1993년 이후 디지털 정보문명 등 사회 변동이 가속화하고 그에 비해 국내 예술 환경은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 우리 학교는 새로운 창의성 구현 등의 노력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대표적 노력으로 추진된 U-AT 사업은 디지털 정보문명의 성과를 집약하고 심지어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던 아날로그 예술·예술가들 간의 접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매우 높게 기대된다. 지난해가 U-AT 사업의 1차 년도였으며, 이에 따라 12개 과제를 수행하여 32종의 보고서와 18매의 DVD 자료를 출간하였다.

이 사업은 특정 예술과 타 예술·과학·인문 간의 융복합을 5개 년도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다. 지난해 1차 연도의 사업에 대해 본교에서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공개 토론에 붙여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처분서에서 해당 관련 교수에 대해 증징계를 요구하는 이유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명서는 이에 대해 "당초 U-AT 통섭교육 사업은 급변하는 예술현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사업이 중도 좌절되었음에도 좌절시킨 당사자가 사업이 부실하니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이미 해외 유수의 권위자로부터 통섭교육사업의 중요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고, 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로는 아무런 손색이 없는 연구결과물을 외면한 채 어떤 근거로 통섭사업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심광현 단장과 전수환 부단장이 증징계 처분을 받을 만한 정도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결의문은 "처분서에 실명으로 언급된 일부 교수들 역시 증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 증징계 요구는 이미 제출한 감사확인서에서 충분히 제기된 소명을 무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사업의 성과를 임의로 평가절하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명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증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히고 있다.

4) 서사창작과 폐지 등 : 본교의 협동과정과 유사한 사례는 우선 중앙대·이화여대·서울대 등에서 찾아진다. 사회 변동, 예술의 다변화, 예술 유사계(축제 엔터테인먼트 등)와의 경쟁 심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본교의 협동과정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부문이다.

성명서는 “협동과정은 예술의 융복합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며, 예술경영, 서사창작, 음악극창작 등이 그 대표적인 전공사례라 할 수 있다. 협동과정은 본교의 경우처럼 전국의(다른) 대학에서도 학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단지 통합적인 교양과정만이 아닌 융합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영학과와 서사창작과의 독립적 학과 운영을 마치 그 유례가 없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감사 확인서에도 없었던 서사창작과 폐지안이 해당과 교수인 황지우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국내 예술의 시너지 구축과 역주행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감사를 빌미로 일부 신문과 특정 인터넷 매체가 학교의 일부 교수들에 대한 이념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이에 맞춰 특정 외부 단체가 본교에 대한 비이성적인 색깔논쟁, 무책임한 본교 해체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의적 비방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런 비지성적인 주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감사를 빌미로 학교의 미래지향적인 교육 사업들을 좌절시키고, 교수들의 정당한 교권을 짓밟고, 본교 교수들의 충의를 통해 선임된 총장을 좌파 코드 인사로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본교 교수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결과의 내용만 놓고 보면 작년 9월 어느 특정 단체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고, 본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감사가 본교 정체성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0년을 전후해서 국내 예술계에서는 예술의 위기라는 진단이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다. 예술의 위기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가중되는 현실에서 그럴수록 능동적인 역발상을 발휘할 필요가 크다. 예술의 연마와 연구뿐만 아니라 예술에 뜻을 둔 사람을 차별 없이 널리 모으고 세계진출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으로 한국 예술의 르네상스를 지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국내 예술의 시너지 구축이 절실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감사 처분은 도리어 역주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대처 방안

본교는 석관동 교정을 신축 정비하면서 둘로 나뉜 교정을 한 군데로 묶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 두 캠퍼스의 통합은 학습권 측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업무 추진에서도 애로가 적지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둘로 나뉜 캠퍼스를 혹자는 ‘강북 캠퍼스’와 ‘강남 캠퍼스’로 지칭하고서는 강남 한예중(음악원·무용원)의 성과를 강북 한예중(연극원·전통원·미술원·전통예술원)이 챙긴다는 표현을 썼다. 미구에 두 교정이 합쳐지면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할지 모르겠다.

이번 감사처분 내용은 학교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행정 감사의 통례를 넘어 교육 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의 인상을 주어 스승의 자긍심을 무색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학습권과 교수권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교수권이 존중되지 않는 여건에서 학습권이 존중될 리 없다. 이에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교수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 예술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성과에 의해 이미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World Class Univ.)’의 수준에 이른 본교가 향후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World Leading Univ.)’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교의 정체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혼드는 어떠한 형태의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외부의 세력이 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학교의 근간을 흔들려는 폭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감사 처분서에 대해 학교 당국이 제출할 시정 조치가 일차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부터 중시되어야 할 대처 방안은 다음의 세 갈래로 대별되며, 현 사태의 전개에 따라 다양한 대처 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준비는 하되 구체적 방안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 1) 법적 대응
- 2) 교권 단체와 연대한 교권 수호
- 3) 공개토론회 제안(예 : 21세기 예술 환경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수행할 역할과 책무)

(본 발제문은 전체 교수진의 결의문, 교협의 성명서 그리고 필자가 본교 신문에 기고한 글을 다수 인용하는 형태로 엮어졌다.)



(사)문화미래포럼과 유인촌 장관의 '좌파 적출'의 일환인 '한예종 죽이기'

연극학과 05학번 김민정

1. '(사)문화미래포럼'은 무엇인가?

얼마전 사퇴한 황지우 총장은 사퇴회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감사 항목들이 문화 미래포럼이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등 문화계의 뉴라이트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동일하다.”

“정치와 이념에 종속된 문화계의 좌(左)편향을 바로잡자”며 2006년 11월 20일날 출범한 문화미래포럼은 정재형(동국대 교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운영위원), 정진수(성균관대 교수), 복거일, 조희문(상명대 교수, 장관정책자문의원) 등의 발언과 문건을 통해 공공연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판하며 그 해체를 주장해왔다. 그 예로 정재형(동국대 교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운영위원)의 ‘국가의 전문예술인 양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영사례를 통하여’(정재형),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 반대한다 : 예술교육 실패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으로 보호하려는가’(조희문) 등의 문건이 있다.

또한 5월 27일 2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아트홀에서 열리는 ‘21세기 문화를 위한 문화법 개정 방안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토론주제로 나가는 핵심 멤버는 빅뉴스의 변희재, 정용탁(한양대 영화과 교수), 정재형(동국대 영화과 교수), 정진수(성균관대 연기 예술학과 교수)이다. 이들은 문화미래포럼의 주축 멤버이며 또한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의 회원이다.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는 2005년 6월 22일 발족하였으며 전국의 국공립, 사립 예술대학 및 관련학과 교수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겠다는 미명 아래 창립총회를 열었다. (최치림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창단상임대표)

최 상임대표는 창립총회에서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 바람으로 예술 장르 간 장벽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90년대 들어서야 이런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며 “예술장르 간 교류와 공동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예교련을 발족한다”고 말했다. <2005.6.23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그러나 이렇게 말한 그들은 왜 '한국국립예술학교' 인 한예종을 전문예술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추라고 지시내리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미래·선도적' 예술 교육의 하나인 한예종 U-AT통섭교육 사업추진은 무분별한 한예종의 '조직이기주의' 로 본다.-빅뉴스 발체-와 같은 논리를 펼치는 것인가?

<http://cyworld.com/everwan 한예종 해체의 '배후'는 누구인가? 발체>

2008년 9월 3일 '문화미래포럼'은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와 같이 '예술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심포지엄을 열은 바 있다. 그 때 한예종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때 이미 "전문예술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추기 위해 한예종 시스템을 해체하고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의 영재교육에만 집중하는 개별 단일학교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999과 2005년 문화관광부가 한예종을 위한 국립예술대학설치법(한예종은 대통령령 제15898호) 제정을 추진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저지운동에 나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증명 하듯이 그들의 목표가 한예종의 힘을 저지하는 데 있음이 틀림없다. <위와 동일 발체>

2. (사)문화미래포럼의 '한예종 죽이기'

- (정재형, 2008) '국가의 전문예술인 양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사)문화미래포럼에서 발간된 '국가의 전문예술인 양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정재형, 2008)의 문제제기를 보면 한예종의 운영사례를 실패작이라 규정짓고, 그에 대한 이유로 1) 소규모 대안학교로 출발한 본래의 취지를 이탈하며 대규모 대학체제로 변경되었음 2) 기존 예술 대학과 교육 내용상의 차별성 없음 3) 국가예술교육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함. 국립, 사립, 전문, 교양 등의 구분이 애매하다. 라고 하는 이유들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한예종의 운영이 실패작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 여태껏 문화미래포럼에서 진행되어 온 한예종 개편의 주요 요지는 한예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실기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이론과와 예술경영과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론 없는 실기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론과 실기는 상호보완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외국 대학의 경우 이론과 실기가 상호보완 해왔으며, 이 상호보완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 예로 줄리어드 스쿨은 음악, 무용, 연극원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인문교양과정(Liberal Arts Division)은 20학점, 캘리포니아예술대학(CalArts)의 미술, 무용, 영상, 음악, 연극 전공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비평연구과정(School of Critical Studies) 20학점, 시카고예술대학(SAIC)의 모든 예술전공 학생들에게 문학, 철학, 역사학, 심리학 등을 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인문학과(Department of Liberal Arts) 20학점 등을 이수해야만 한다. 각 원별 통합교과목 이수학점은 음악원 8학점, 연극원 14학점, 영상원 8학점, 미술원 8학점(건축과 2학점), 전통원 10학점(한국예술학과 18학점), 협동과정 16학점 등으로, 앞의 예술교육기관에 비해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해엽 춘우 장학재단 이사장은 빅뉴스 기사에서 "국립예술교육기관이라면 당연히 실기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예술 선진국에서는 국립예술교육기관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옛날 얘기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유럽 컨서바토리를 흉내 낸 학교가 아니고, 그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고자 유럽과 미국의 기존 예술고등교육기관의 발전적인 형태로 만들어낸, 세계적으로도 칭찬 받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이다. 양해엽 원장의 말대로 몇 백년 된 컨서바토리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서 현재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은 소르본느에서 음악학 교육을 필수로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연극원(CNSAD)은 FEMIS(국립영상원)에서 1년간 강의와 실습을 받게 하는 등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이론 및 장르 간 융합 교육을 억지로 하고 있다.

유럽 실기학교에 이론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현실이지만 이론 교육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후발 주자인 리옹의 ENSATT(국립연극, 기술학교)에서는 과거 컨서바토리였으나 연극원과 비슷한 구조를 채택해서 연기, 무대미술/의상/조명/음향, 극작, 연출, 예술경영 등의 과를 편성하며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론 교육은 당연하며 리옹대학과 이론 전공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예술전문 고등교육기관이지, 기존의 컨서바토리나 미국 대학을 흉내 낸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예술 대학과 교육 내용상 차별성이 없다는 것인데, 현 실정에 각각의 예술 분야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창조적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각각의 예술 분야가 동시에 존재하여 각각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이를 상호보완하고 교류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협동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풍성한 예술적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동과정을 없애고 각 개 원이 모여 있는 한예종을 분산시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미래포럼은 이러한 각 예술 간의 교류와 상호보완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또한 정재형의 글에서 연극원에 있는 극작, 연출, 이론과는 모두 폐지시키고 연기과만 남겨 연기원을 만들자는 사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극작과 연출 이론 연기가 모두 같이 있음으로 인해 새로운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국가의 미래적 자산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모든 예술 분야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성 안에서 한예종은 그동안 많은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그 예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의 장유정과 극단 명랑씨어터 수박의 뮤지컬 '빨래', 뽀빠의 '하루이야기', '노래하듯이 햄릿',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등이 있다. 이는 다른 과 혹은 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다. 장유정의 '오, 당신이 잠든 사이'의 경우 이론과에서 드라마터그로 예서희씨가 참여하였고, 뽀빠의 '하루이야기' 등은 전통예술원의 음악과가 참여하여 공연에서의 전통을 살린 음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한예종의 거의 모든 공연과 작업에서 이러한 타 원, 타 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연계해 하고 싶은 분야의 작업이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인력 구성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장점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기존 예술 대학과의 차별성은 설명되었으리라고 본다.

협동과정과 다양한 장르간의 융합을 지향한 U-AT사업의 구상은 학교를 설립한 이어령 전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월간조선 2008년 8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저는 예술학교를 만들되 독자적인 장르가 아닌 여러 장르의 예술이 한 울타리 내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그런 구상을 주변의 도움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술의 교류에 대한 구상은 학교 초기 설립 목적이었고, 이런 구상안을 밑바탕으로 만들어진 협동과정이나 U-AT 사업은 하루아침에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발전되고 지향해야 할 예술학교의 협동과정과 통섭교육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싸움에 휘말려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

세 번째로 국가예술교육체제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의 이야기와 중복되고 집필자 또한 제대로 밝혀 놓지 않았으므로 건너뛰도록 하겠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문화미래포럼은 한예종 통폐합으로 규모를 줄이고, 이론과를 폐지하고 오직 영재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조조정하자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사적' 단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감사 결과 통보되었던 이론, 서사창작과 폐지의 안전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통보되었던 내용은 예술-과학기술 융합교육인 U-AT(유비쿼터스-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과 이론과의 축소/폐지, 서사창작과 폐지 등인데, 이는 문화미래포럼에서 주장해온 개정안과 일치한다. 다시 정재형씨의 문건에서 발췌하겠다. 이는 정재형씨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계의 의견을 사적으로 들어보았다'고 정재형씨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감사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목표를 포함하여 국립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추구여부
둘째, 여타 교육기관과의 불필요한 중복투자 여부
셋째, 투자예산의 효율적 운영여부”

대학시스템을 폐기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예술학교를 해체하고 각각의 학교로 독립시킨다. 그것이 몇 개가 남고 어떤 성격이 될 것인지는 다음의 단계를 밟아 필요한 학교만 남기는 방안이다 :

1단계, 각 원에 있는 이론과 및 협동과정을 폐지한다.

2단계, 예술대학과 중복되는 전공은 폐지한다. 단일하고 축소된 형태의 영재 조기교육 학교로 남고 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전공만을 특별히 하는 학교로 전환한다.

사계의 의견을 사적으로 들어보면 영상원의 경우,

- 영상원과 아카데미를 통합하여 국가영상교육기구를 최소화하고 더욱 기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사립대학 영상교육과의 상호관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 영화제작 현장과의 연계 및 재교육기관으로 성격을 전환한다는 의견을 참고할 만 하다.이럴 경우 연출, 기획, 이론 등의 전공은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할 수 없는 기술교육만을 하고 영화 인재교육기관으로 내용을 전환할 수 있다. 이름도 영상원에서 '국립영화학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아시아 영화교육만을 전담하는 아시아영화학교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술원도 영재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음. 폐지 내지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연극원은 이론, 극작과를 폐지하고 연기원으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기원도 현장 재교육기관으로 운영하자는 것. 동문극단의 폐지. CEO과정도 폐지. 전통예술원은 연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음악원(국악), 무용원(한국무용)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음악원과 무용원은 조기영재교육원으로만 운영한다는 의견.

〈정재형, 국가의 전문예술인 양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중〉

3. (사)문화미래포럼과 유인촌 장관이 '좌파 적출'에 손잡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계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모인 '(사)문화미래포럼'에서 발언한 사안들이 왜 감사 항목들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경남문화미래포럼의 창립총회 때의 기사를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한 것은 상징적이었다. 이어진 축사에서 그는 “그간 편향된 시각에 의해 문화예술계가 편승됐던 아픈 경험이 있다. 건실한 정책제안을 내놓는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술 전 분야가 망라됐다. 장르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문을 열자”고 했다. 문화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이면에 정치적 성향을 내재시킨 것이다. <2008. 7. 17, 경남도민일보 기사 중 발췌>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그간 편향된 시각에 의해 문화예술계가 편승됐다”라고 발언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계가 좌편향적이었다.”(임연철, 중앙대 초빙교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정치에 훼손된 문화예술의 순수성과 다양성을 되찾겠다.”(복거일, 소설가, 뉴라이트)라고 발언한 문화미래포럼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좌파코드 적출론'의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다. 2008년 12일 오전 광화문 문화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그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그 당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후 이들의 '좌파코드 적출론'의 발언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좌파코드인사'의 대표격인 KBS 정연주 사장이 검찰고발을 당하며 사장직에서 쫓겨났고,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정순균 사장, 예술의전당 신현택 사장,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등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은 사퇴압박에 시달리다 자리를 물러났다. 기관장이 사퇴를 거부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후 이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해임통보를 받으며 문화계의 '좌파 적출'은 절정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감사 통보'는 이러한 '좌파 적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이의 선두에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과 그와 길을 같이 하는 문화미래포럼에 있음이 분명하다.

(사)문화미래포럼은 “문화예술의 순수성과 다양성을 되찾겠다.”고 이야기하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문화정책에 대해 '좌편향'이라 규정지음으로 해서 '역편향'된 문화정책노선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있다.

또한 “그간 보수집단의 목소리라 너무 약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남문화미래포럼은 문제의 배경과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예술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푹푹 묻쳐야 한다.”(송병주, 경남대 행정경찰학부, 문화미래포럼 회원)라는 발언에서 이미 그들이 말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훼손된 문화예술'은 또 다른 정치 이념에 의해 개입되고 그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순수성과 다양성을 되살린 미래의 문화예술'이 되려면 이러한 정치적 편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미 설립 목적부터 정치성과 이념이 개입된 단체에서 그러한 미래의 문화예술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조차 모순이 아닐까.

4. 한예종은 과연 '좌파 학교'인가? 근거 없는 딱지 붙이기의 일환

황지우 총장의 사퇴 이후, 수없이 나왔던 기사의 내용은 '좌편향 한예종'이었다. 그 대표적 예로 박뉴스 변희재 기자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동권 학맥', '운동권 서울대 미학과에 장악된 한예종', 독립신문의 '한예종 사업', '좌파 나눠먹기, 의혹?' 등의 기사 제목들은 낯뜨거울 정도이다.

또한 실제 이 사태의 중심 역할로 자리하고 있는 '문화미래포럼'에서는 한예종을 이미 '좌편향된 예술 교육 기관'으로 규명하고 개혁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딱지 붙이기는 무엇이 좌편향인지, 한예종이 과연 좌파 학교인지 그 어떠한 근거나 논리 없이 진행되었다. 변희재 기자가 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동권 학맥'이라는 기사에는 '한예종이 전문성이 부족한 몇몇 좌파운동가 교수에 의해 장악 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중 언급 되는 교수는 황지우, 이동연, 진중권(한 학기 강의), 심광현, 전규찬 교수이다. 그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력이 좌파 문화 및 언론단체 활동가라는 점을 들며 이들로 인해 한예종이 '좌파'에 잠식당했으며, 통섭교육 또한 좌파운동가들의 밥그릇으로 쓰일 것이라 한다. 이들이 좌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몇몇의

교수들에 의해 국립예술학교가 이념으로 잠식 될 수 있는 학교냐는 것이다. 한예종은 원별, 과별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런 학교에서 소수의 교수들이 어떻게 140여명의 교수의 다양한 의견을 장악할 수 있는가? 설사 몇몇 교수들이 실제 그들이 말하는 '좌파적' 행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정치적 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몇몇 교수만 가지고 학교 전체를 '좌파 학교'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한 '오바'임을 유치원생도 알 것이다. 만약 이 논리에 따른다면 기타 '좌파적' 행적을 가진 교수들이 있는 종합대학은 모두 '좌파 학교'란 말인가?

실제 '좌파'라는 딱지가 붙고 몇몇 논객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는 진중권씨의 경우 한예종 교수가 아니라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 교수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진중권씨가 교수로 있는 중앙대는 단지 진중권이 교수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좌파 학교'로 불려도 되는 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이념으로 인한 선 가르기 혹은 딱지 붙이기가 왜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과 이념이 맞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딱지 붙이기를 이용해 낙인찍고, 매도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이러한 한국식 매카시즘이 국립예술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파괴 시도 중단하라!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감사 결과가 통보되었다. 핵심 내용은 황지우 총장 및 일부 교수에 대한 중징계, 이론 관련학과의 폐지와 통섭교육 중지 등이었다.

먼저, 8개 이론 관련학과의 축소·폐지는 한예중 설립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론 교육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예술은 표현력이 중요하지만 그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내실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대학을 기능학원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통섭교육 중지 입장은 장르가 융합되고 있는 예술계 흐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학생·교수·교직원 등의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와도 맞지 않는 비민주적인 정책의 강요이다. 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연일 퍼포먼스와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의 학생들의 움직임에 비롯하여 전 학내 구성원이 반발하는 현황이 얼마나 무리하게 강요되고 있는 현황인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황지우 총장 사퇴 압박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고 있는 문화계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인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무리한 정치 수사로 전직 대통령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이 현 정권의 모습이며, 더욱이 문화예술 공공기관이자 대학인 한예중의 총장, 교수 등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들이대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의 예술전공 대학생들은 민주적 대학운영과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처사에 한예중 학우들과 함께 적극 연대하여 맞설 것이다. 예술계 일부 진영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쳐지고 있는 한예중 파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대학예술교육의 비전을 마련하고, 비싼 등록금에 고액 실습비용 부담의 2중, 3중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전공 대학생들의 교육현실을 해결하라!

2009년 5월 28일 1기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의 입장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공개질의서 - 신재민 차관에게 묻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6월 2일 오후 본교 서초동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본교 감사 사태와 관련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본교 음악원장 및 기획처장, 몇몇 교수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황지우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한다.

본교 업무를 총괄하는 제1차관으로서 신재민 차관의 이런 발언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 우리는 바로 이번 감사가 현 정권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총장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감사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의 발언은 결국 현 정권과 코드가 어울리는 사람이 차기 총장이어야 한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같은 날 두어 시간 전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본교의 6개원 원장들과의 면담에서 차기 총장 선출의 건을 본교 교수들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 실로 막중한 책임을 진 제1차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이번 표적 감사 사태가 벌어질 동안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또한 처분 요구서에 없는 사실무근의 내용들까지 언론에 부풀려 유포되어 본교와 본교 구성원은 명예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왔다. 이런 비지성적인 이런 행태, 표적 감사 그리고 총장 사퇴로 인해 본교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매우 민감한 이 시기에 특히 신재민 차관의 발언은 주무 차관으로서 본교를 보호하기는커녕 본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분열시키려는 몰상식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립대학 총장이 특정 정권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해서 심지어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신재민 차관의 발언은 대학과 총장의 양식을 무시하는 폭력성마저 안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신재민 차관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반 교권 단체와 연대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신재민 차관이 본교를 갑자기 방문하여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이번 발언의 진의를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차기 총장 선임에 대비하여 미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즉각 거두고 본교 교수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본교 교수협의회는 본교 현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교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을 교체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협의회

한예종 사태 일지

1. '08년 3월
유인촌 장관 취임 후
한예종 업무보고서 발인
2. '08년 6월말
통섭교육사업 2009년 예산, 35억원 신청. 장관지시로 20억원으로 삭감
3. '08년 8월
통섭교육사업 2009년 예산, 20억원 장관지시로 전액 삭감
4. '08년 9월 3일
[미래교육포럼] (대표정진수 성균관대교수에서 한예종 개혁안 관련 공청회 개최)
5. '08년 10~12월
 - 통섭교육사업 2009년 예산 20억원 전액 삭감 관련 국회 공방
 - 국회 상임위, 20억 원을 살리는 것으로 합의, 그러나 주무장관(유인촌 장관)이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
 - 12월 중순 경, 2009년도 예산 전액 삭감 결정
 - 12월 17일, 제4차 원장 회의, '미래교육준비단' 규정 폐지
 - 12월 19일, 제5차 원장 회의(서면심의), '협동과정 운영 규정(안)' 서면 결의
 - 12월 30일, '협동과정 운영 규정' 제정, U-AT 통섭교육사업을 수행했던 9개의 랩을 1개의 랩(AT-LAB), 77명의 연구원을 7명의 연구원으로 축소·통폐합하여 협동과정 내에서 운영키로 함
 - 12월 중순 경, 2009년도 예산 전액 삭감 결정
 - 12월 17일 제 4차 원장 회의, '미래교육준비단' 규정 폐지
6. '09년 1~2월
1월 15일, 2009년 협동과정 AT-Lab 운영안 마련. '08년도 8개 시범교과를 5개로 축소 통폐합하여 2009년도 1학기 개설
7. '09년 3월 18일~4월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실시(1주차 6명, 2주차부터는 10명이 학교에 상주)
8. '09년 3월 20일
 - 인터넷 아우어뉴스, '진중권 참여 프로젝트, 30억대 사업부실 및 공공유용 의혹' 보도
 - 인터넷 독립신문, "한예종사업, '좌파 나눠먹기 의혹?' 보도"
9. '09년 3월 24일~3월 31일
인터넷 프리즌 뉴스, 빅뉴스, 주간 미디어워치 등 인터넷미디어협회(정책위원장 변희재) 소속사를 중심으로 U-AT 통섭교육사업 부실과 진중권 교수 객원 교수 채용 관련하여 시비 기사 게재
10. '09년 4월 3일
동아일보 동아광장,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동권 학백" 제목으로 변희재 기고
11. '09년 4월 8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한예종에 대한 진실과 거짓말' 제목으로 이동연(한예종 전통예술휘) 교수가 4.3(금) 동아일보 동아광장 변희재 기고문에 대한 반론글 기고
12. '09년 5월 18일
 - 오후 6시경 한예종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 '종합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협조' 결과 통보
 - 연합뉴스, '한예종 황지우 총장 업무규정 위반 적발' 기사 게재

13. '09년 5월 19일
 - 한예종 감사결과에 대한 기사 매체에서 게재
 - 오후 2시, 총장 기자회견, 황지우 총장 사퇴의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 기자 회견 후 유인촌 장관에게 사표 제출
14. '09년 5월 20일
 - 영상이론과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구성
 - 한예종 교수협의회 (이하 한예종 교수협) 성명, 영상이론과 비대위 성명, 협동과정 학생 성명, 서사창작과 학생 성명 발표
15. '09년 5월 21일
한예종 전체 학생대회 개최
16. '09년 5월 22일
 -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생비대위) 구성
 - 전체 교수 회의, 총화된 결의문 발표하기로 함
17. '09년 5월 25일
 - 총학생회/ 학생비대위 공동성명 발표
 - 전체 교수 결의문 발표
 - 이론과 전체 학생 총회 개최
 - 영화과 비상 총회 개최
18. '09년 5월 26일
 - 한예종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 교직원 연석회의 개최
 -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사회: 김소영 영상원 교수, 패널: 김석채 무용원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임용균 음악원 교수, 전중수 교직원노조 한예종지부장, 이꽃별 해금연주자, 김영진 학생비대위원장)
 - 한예종 전체교수 명의 '부당한 감사결과 처분 철회 요청 결의문' 발표
19. '09년 5월 27일
학생비대위, 전체교수 '결의문' 지지 성명 발표
20. '09년 5월 30일
문화부 황지우 총장 해임 및 교수직 파면 결정 통보
21. '09년 6월 1일
학생비대위, '황지우 총장 교수직 부당 파면에 항의하는 교내 촛불집회' 개최
22. '09년 6월 2일
 - 교수협 및 황지우 총장 기자회견, "사표 수리 및 교수직 박탈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사전협의 없이 한예종 총학생회 및 비대위 대표 접촉 (국장 면담 약속에 예고없이 등장) '후임 총장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비공식 구두 발언
 -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 한예종 서초동 캠퍼스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 대학 총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
23. '09년 6월 3일
한예종 교수협, 전일 신재민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 및 차관 교체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 발송
24. '09년 6월 5일
한예종 학생 비대위 및 이론과 연석회의, '한예종 사태 해결을 위한 연속 심포지엄-1'을 '예술교육의 자율성과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개최 (사회: 이승엽 예술경영 교수, 패널: 김윤철 연극원 교수, 박찬경 미술가, 고재열 기자, 우석훈 경제학자, 김사과 소설가 등)

성명서

2009.05.19	황지우 총장 사퇴 기자회견문
2009.05.20	한예종 영상이론과 성명서
2009.05.20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2009.05.20	한예종 협동과정 서사창작과 성명서
2009.05.20	한예종 협동과정 학생회 성명서
2009.05.20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예종 지부 성명서
2009.05.22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 발기문
2009.05.22	한예종 총학생회 및 각 원 학생회장단 입장표명
2009.05.25	한예종 총학생회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2009.05.25	한예종 교수 일동, 부당한 감사처분 철회 요청 결의문
2009.05.26	한예종 연극원 연출/극작과 성명서
2009.05.26	한예종 연극원 극작과 졸업동문 성명서
2009.05.27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예술사/전문사 공동성명서
2009.05.27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교수 결의문 지지성명
2009.05.28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성명서
2009.06.01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 황지우 총장 해임 및 교수직 파면 규탄 성명

언론보도 목록

2009.05.19	국민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해럴드경제 문화저널21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 표명... 문화부 "공금횡령, 성실의무 위반" 진보시인 황지우 총장 전격 사퇴... 한예종 무슨 일 있었기에 [사설] 예술교육마저 난자한 유인촌의 칼춤 황지우 한예종 총장 사퇴 제출 황지우총장, '문화부 감사는 용단폭격식 감사' 황지우 총장직 사퇴 "문화부에 항의 표시" 황지우 사퇴 문화계 진보인사 물갈이 끝
2009.05.20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뉴스스 프레시안	"총장을 좌파로 몰아 쫓아내려고 하다니" 민주 "한예종 표적감사로 자율성 훼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 "황지우 총장, 부당압박에 항의"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 문화계 '좌파 적출' 끝?
2009.05.21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CBS<김현정의뉴스쇼> 서울신문	[사설] 황지우 한예종 총장마저 밀어낸 불도저 정권 '한예종-좌파 강습소', 보수들 '주홍글씨' 낙인 황지우, 문화부 재반박 "1월 8일 내 거취 물었다" [사설] 문화부의 이중잣대 유감
2009.05.22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우리 과가 외압으로 없어진다니" 한예종 학생들 반발 "좌파의 온상" 이론학과 폐지... '한예종'에 무슨일이 있나
2009.05.23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참세상	"한예종 감사 요구서에 황총장 정계 언급없어" 정권 코드싸움에 등터진 학생들의 학습권 [이득재의 줌 인 줌 아웃]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2009.05.24	고대신문	한예종에 비친 문화부의 본새
2009.05.25	연합뉴스 연합뉴스 노컷뉴스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한예종 교수협, 연석회의 개최 한예종 교수 '감사 처분 철회' 요구 한예종 교수 일동, 부당한 감사처분 철회 요청 결의문 고래싸움에 학생들 등만 터지죠 한예종 교수협, 표적감사 대응 연석회의
2009.05.26	씨네21 참세상 연합뉴스	영상원은 왜 사라졌는가 바우하우스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내부기류 '부글부글'
2009.05.27	코리아헤럴드	K-Arts Protests Gov't Audit
2009.05.28	한국일보 여성주의저널 일다	한예종 사태 학교위상 / 교권문제로 확산 "표현의 자유는 예술의 생명입니다"
2009.05.29	한겨레21	우파의 '통섭', 한예종을 쏘다
2009.06.01	연합뉴스 씨네21	한예종 교수협 "황 총장 사퇴 수리 부당" [강병진의 영화 판.판.판] 한예종의 장례식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2009.06.02	주간 한국 프레시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한예종 황지우 총장 "권력의 악착스런 모습에..." "문화부는 '인터넷 낭인' 들의 꼭두각시인가" "총장직도 모자라 교수직까지 빼앗나" 유인촌 "뒤편 고생하니, 다 해준다는데" '이념 전장' 된 예술종합학교
2009.06.03	주간 한국 주간 한국 PD저널 PD저널 뉴스스	문화부 공기관장 퇴출의 '패턴' 문화부의 한예종 감사 문제 없다. 쫓겨난 총장, 버티는 대법관 신재민 "황지우 전 총장, 현 정권 지지 안 하잖나" 한예종 교수협, 신재민 차관 교체 요구
2009.06.04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유인촌의 한예종 죽이기... '진짜' 이유는? 한예종 간 신재민, "우파 정권때 우파총장 나와야"
2009.06.05	프레시안 한겨레	유인촌 장관, 자멸의 길로 가는가 '잘나가던' 한예종, '정치적 타살' 당하나

일시

'09년 5월 18일 오후 6시
 '09년 5월 18일 오후 7시
 '09년 5월 19일 오후 2시
 '09년 5월 20일 오후 3시
 '09년 5월 21일 오전
 '09년 5월 21일 오후 6시
 '09년 5월 22일 오전 11시
 '09년 5월 22일 오전 11시
 '09년 5월 22일 오후 1시
 '09년 5월 22일 오후 2시
 '09년 5월 24일
 '09년 5월 25일
 '09년 5월 26일
 '09년 5월 27일
 '09년 5월 30일
 '09년 6월 1일
 '09년 6월 2일
 '09년 6월 3일
 '09년 6월 4일
 '09년 6월 5일

내용

문화부 감사 내용 본교 통보
 문화부 감사 내용 외신 보도
 황지우 총장 사퇴 표명 기자회견
 본교 교학협의회 개최
 영상이론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1인 시위 시작
 영상이론과 비상대책위원회 주관 '비상연석회의' 개최
 '한예중 학생 비상대책 위원회' 발족식
 김해숙 전통예술위원장, 입시 비리로 문화부 증징계 외신 보도
 학생 비대위 조직 구성 및 활동방향 모색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본교 교수진, '교수연찬회'
 원 별 동문회장 비상회의 개최
 석관동 교사, 도서관 동 앞 학생 비대위 퍼포먼스
 서초동 교사, 학생 비대위 퍼포먼스
 학생 비대위, 전체교수 '결의문' 지지 성명 발표
 문화부 황지우 총장 해임 및 교수직 파면 결정 통보
 황지우 총장 사표수리 / 황지우 총장 파면 반대 촛불집회 개최
 황지우 총장 기자회견 / 전체 학생 회의
 문화부 항의 방문 (연기 / 차후공지)
 서초동 교사 교내 홍보
 '예술 교육의 자율성과 방향성'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향후 주요일정

'09년 6월 8일
 한예중 사태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교수협의회,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동문, 교직원 대표 참여)
 연석회의 주체 기자회견, 심포지엄

2부 - ART IS OUR POWER



애도문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들 많으나
마음 만드는 것 보다 즐거운 일 없으라
내 손 끌어서 웃음과 눈물은 고운 꽃 되고
우리 눈빛에서 어둠은 태양이 된다.
높이 오르지
선택된 자여
아름다움을 위해 단 한 몸을 여는 자여
남들 모두 잠들 때에도 홀로 눈을 떴구나
이에 춤의 한 마당에서 손을 잡는다.
애도문. 지금의 나를 애도한다.

1. 예술에 이론이 필요없다는 말은 과학에 검증이 필요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그 몰이해를 애도합니다.
2. 예술의 자유가 짓밟힌 것을 애도합니다.
3.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짓밟힌 것을 애도합니다.
4. 지켜주지 못한 내 꿈을 애도합니다.
5. 불안감에 빠진 새내기들의 학교생활을 애도합니다.
6. 표현의 자유가 짓밟힌 것을 애도합니다.
7. 빛 보지 못한 나의 열정을 애도합니다.
8. 1만 시간의 몰입을 애도합니다.
9. 이권에 휘둘리는 미래의 예술을 애도합니다.
10. 받지 못할지라도 모르는 많은 수업을 애도합니다.
11. 울리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공연을 애도합니다.
12. 사라질지도 모르는 저의 시를 애도합니다.
13. 부르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노래를 애도합니다.
14. 방송할 수 없을지 모르는 수많은 영상을 애도합니다.
15. 찍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영화를 애도합니다.
16. 연주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음악을 애도합니다.
17. 그리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작품을 애도합니다.
18. 만들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작품을 애도합니다.
19. 표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몸짓을 애도합니다.

20. 걷지 못할지도 모르는 나의 길을 애도합니다.
21. 소리 없이 우는 나의 가슴을 애도합니다.
22.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애도합니다.
23. 이중 잣대로 매도된 학교이름을 애도합니다.
24. 소통되지 않는 이 현실을 애도합니다.
25. 예술에 대해 고민할 수 없게 하는 이 시간을 애도합니다.
26. 시민들과 함께 했던 예술작업을 애도합니다.
27. 피땀 흘려 등록금 주신 부모님의 노고를 애도합니다.
28. 대자보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애도합니다.
29. 작품을 위해 지내던 수많은 밤들을 애도합니다.
30. 학교의 자율권이 침해된 것을 애도합니다.
31. 예술가에게 인권과 같은 빼앗긴 자유를 애도합니다.
32. 명작과 고전이 쓸모없는 이론으로 매도됨을 애도합니다.
33. 실기와 이론이 양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몰이해를 애도합니다.
34. 대안 없는 폭력에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애도합니다.
35. 문화와 교육이 자율성을 잃어가는 지금의 상황을 애도합니다.
36. 역사를 애도합니다.
37. 좌절된 입시생들의 소망을 애도합니다.
38. 새로운 시도와 창조의 시도가 좌절된 현재의 상황을 애도합니다.
39. 스승과 아무 것도 상의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애도합니다.
40. 가난한 사람도 예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려는 상황을 애도합니다.
41. 학생을 학생답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애도합니다.
42. 문화와 예술을 갈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애도합니다.
43. 예술을 예술답지 못하게하는 이 상황을 애도합니다.
44. 한계를 뛰어넘지 말라는 퇴보적 발상을 애도합니다.
45. 17년 동안 다져온 토대를 6주만에 무위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애도합니다.
46. 침해당한 교권을 애도합니다.
47. 진실을 알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을 애도합니다.
48. 꽃 피는 5월을 애도합니다.
49. 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애도합니다.
50. 애도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애도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1993년 7월, 예술의 전당과 그 안팎에 별다른 것
 전액생 6억 3200여억 (대학원 포함)
 26개 학과, 캠퍼스, 학생동, 박재동, 캠퍼스, 조경면 26 등



그러고...
 2009년 5월... 우리 학교에,
 문화부가 보낸 충격적인 감사결과가 날라오죠..

1. 왕지우(시인) 한예종 총장일
 증정해 말 것
 어머님? 600여만 원
 관공리악

2. 과학-예술 통합교육 (U-AT)을
 당장 중단 말 것
 POSTECH K-ART

3. 한예종 내 모든 이론과를
 축소 혹은 폐지할 것.

이런 것 어떤 정부도
 대학교의 과를 폐지라고
 명령한 적은 없었는데도 말이지요.

2009년...
 우리의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예술에서,
 이론과 실기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매일 유명 예술 대학들은
 미학/역사 등 이론수업을 실기와
 병행하지요.

콜라주 카나기멜론
 케티스 음악대학

한예종은 전체의
 92%가 실기수업이고,
 나머지 8%는 이론수업이에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었기에,
 한예종 학생들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국내 및 해외 콩쿠르
 1위 수상자만 400여 명
 (음악원, 무용원)

모택, 이선근 배우 등... (연극원)
 연극 "兩(이)" (연극원)
 (영화 "왕의 남자" 제작) 김태웅

장윤기, 이연걸 (국립발레단) (무용원)

영화 "추격자" (영상원)
 이성재, 나영진

동등-

만약 이론이 없다면...
 기운은 좋는데
 콘텐츠가 없다!

이런은 좋는데
 내용이 없다!!

우리 한예종 학생들은,
 실기와 이론이 공존하는 이 학교를 사랑합니다.

제발 학생들과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정치, 이념을 이유로 우리들의 꿈을 앗아가지 마세요.

ART IS OUR POWER!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2009. 5. 27. 11월 22일 11월 22일 11월 22일

박솔잎 영상이론과

나는 왜 이론과에 왔는가

이민희 전문사 음악학과

고등학교 때 락음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대학에 들어와서 클래식 작곡을 공부할 때에도 내가 즐거워하고 느끼는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다.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현대음악 곡을 쓸 때에도 어째서 대한민국의 학부과정에서 이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내가 곡을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했다. 내가,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둘러싼 좀 더 넓은 틀레와 그것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칙들 나의 '형성된' 가치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민되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었다.

마침 다니고 있던 학부의 작곡과에 갇혀 있었던 이론적인 커리큘럼들은 배우고 있던 작곡실제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으며, 나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찾아 읽은 많은 이론서들, 음악미학 책들, 시대에 관한 이론들, 음악사학회 서적들은 내가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학부의 음악학, 음악사 수업에서의 강력한 경험은 나에게 쾌감을 선사했으며 동시에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음악 이론이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대학원을 이론전공으로 오는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작곡과 졸업 후 많은 친구들은 다시 곡을 쓰고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며 각자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한예종에서 음악이론-음악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예종에서 만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음악이론'의 깊이와 다양함은 나에게 더 많은 궁금증과 목표를 유발시킨다.

음악이론은 곡을 쓰면서 느꼈던 나의 궁금증과 작곡 실재의 든든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청중들, 어쩌면 따로 섬 같이 서 있는 이 대상들의 주변을 이어주고 채워주며, 사회와의 간극을, 시대와의 간극을, 그들의 무의식을 채워주고 해석해주며,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는 매력적인 학문이었다.

음악이론은 다양한 연구분야로, 다양한 방법론으로 우리시대에 음악이라는 예술을 사람들이 끌어안을 때 생기는 많은 접점들에서 있다. 이것은 작가는 평론가와 이론가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는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막연한 동경심,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일 수도 있다. 생각 없이, 논쟁과 가치판단 없이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은 없다. 어느 누가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기계적 운동경기'에 현혹되어 그 수치만을 즐기려 한다면, 그저 자신의 컴퓨터를 타이핑하는 손가락을 쳐다보기만 해도 될 것이다. 모든 예술활동에는 그것에 동반하는 담론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따른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선택한 음악이론-음악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예술에 대한 '생각'도 늘 존재한다. 음악과 예술에 대한 사랑과 고민은 내가 이론과에 온 이유이며 목적이었으며, 내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이상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두들은 '음악이론'에 많은 빛을 지게 될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열광적으로 엠티비에 빠져 있었다. 무수히 범람하던 이미지들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로 꿈꾸듯 지냈었다. 영상에 대한 관심은 나아가 직접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고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충동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한 충동을 느낀 순간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앞으로는 꼭 그림만을 그릴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꿈은 바뀌었다. 영상이 너무 좋아 영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한예종에 가고 싶다' 고 말했다. 솔직히 면접 당시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영상은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멀티미디어영상과를 다니면서 영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홈페이지의 커리큘럼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막연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나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배움의 자세에 있다. 대학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영상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과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애니메이션과, 방송영상과, 영상이론과, 영화과 이 네 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작업을 해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입학시험을 치른 후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나

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고 적었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영상언어를 더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 도와달라고도 썼다. 학교가 내가 믿는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타 대학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한예종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절실했다.

나는 '영상'이라는 총체적인 의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멀티미디어영상과에서는 나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뮤직 비디오 등, 영상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타과들과의 접촉을 많이 시도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타과에서 다루고 있는 작업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내 작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게다가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분야를 영상예술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상만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술원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다. 미술이라는 순수 예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감을 나의 작업에 적용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다분 미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멀티미디어는 '멀티'가 뜻하는 '다양함'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분야와의 교류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싶고 한예종의 멀티미디어영상과는 나의 꿈을, 더 나아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예종 영상원의 커리큘럼이 타과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룰 수 있도록 짜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더 감사한 것은 다른 과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경험(특히 영화에서는)과 영상의 역사 등의 이론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숙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공부 한다'는 것은 시도, 실천, 실기를 더 잘 익히기 위함이 아닌가? 단순히 '영상'을 위한 '영상'만을 다루는 것은 한 분야의 예술의 독단이 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내가 믿는 예술의 자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예종에서 이뤄지고 있는 타과와의 교류는 협력관계라는 느낌보다는 분야만 분류되었을 뿐이지 모든 분야가 원래 '예술'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그림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론이다. 이론을 통해서 영감이 솟아나기도 하

고 영감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론은 예술가를 끊임없이 시험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다분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문화 등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론이란 단순히 '학문'의 개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실용화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게다가 내 작업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그만둘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들어오고 나서 이 학교가 더 사랑스러워졌다. 초반에는 예술의 한복판에 있다는 느낌에 자랑스러웠다. 물론 학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예종이라는 학교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다. 어쩌면 꿈꾸었던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행복을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원동력은 자기 작업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인 것 같다. 나로서는 그 힘을 받고 매순간순간에 중심을 잡게 된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이론교육이라 함은 무엇인가? 이론과 실기를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가 더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들은 실기와 무관한가? 언제까지 맨땅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뛰게만 할 생각인가?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술교육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한예종을 처음 세운 목적은 무엇보다도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유학과 같은 질 좋은 예술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학교는 눈부신 성과를 내며 그 초기에 세운 목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학교에 기존 취지에 벗어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은 무엇인가.

설치영 제3조에 언급된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영재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이라는 부분 중에서 '실기교육'이란 말만 들먹이며 "이론과가 왜 필요하나, 몸집 불리기다" 운운하는 그 태도를 어떻게 다른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논리를 내세우는 수많은 예술가에게 물어보자. 그 분들은 이론을 배우지 않았냐고, 몸으로 하는 것만이 예술이라고 누구한테 배웠으며 누가 그러하던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무엇이 실기고 무엇이 이론인가. 나 역시 저 논리를 내세운 사람들과 같이 1차원적인 '이론'에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한예종 내에 있는 수많은 이론과의 배움과, 그 배움을 통해 그들이 앞으로 한국예술을 위해 할 일들은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다.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자동차회사에서는 차 한 대를 판매하려 해도 그것을 구매하는 대상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도록 할까에 대해 고민한다. 또 팔리지 않으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연구하고, 그 차보다 더 품질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제품을 분석하고 기록한다. 또 왜 이런 차가 필요한지, 다른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들이 계속된다. 다른 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문화부에서는 왜 예술교육을 후진화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무턱대고 밤을 새면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음을 더 잘 알고 있을 분들이 왜 계속 그러시는 것일까.

이미 예술도 한 나라의 산업이다. 문화콘텐츠는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며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산업이다. 이미 예술이 앞서서 나라들은 최고의 선진 국가들이며, 그들은 이미 한예종보다도 더 세분화 교육과 철저한 이론교육이 바탕이 되어 유지, 개발되고 있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나라에 위상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피땀 흘려 불철주야 연구하고 분석하는 수많은 미래 예술가들에게 쓸데없는 힘의 논리를 핑계 삼아 족쇄를 씌우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내 발, 내 손 묶는 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나.

모든 것의 발단은 나의 젊음에 유난한 아픔이 되었던 소통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어린 시절 소통이 부재하는 환경에서 자란 나는 예술을 접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경험은 무척 소중한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글로, 비주얼로, 소리로 혹은 혼합된 형태로 반영하여 소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 실마리를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진폭에 변화를 주고 궁극적으로 또 다른 행동과 현상을 재생산하게 하는 에너지로서의 작용, 그 일련의 과정은 예술이 가진 가장 큰 힘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매력의 바다에 한참 빠져있던 나는 운이 좋게도 예술을 하거나, 하고 싶어하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 나는 그 모두가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경험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가 너무나 적고 한정적이라는 점에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나를 예술경영이라는 소통의 학문으로 인도한 셈이다. 그것은 하나의 동기로써, 나의 경험을 보다 발전시켜 다양한 예술 교류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험하는데 적합한 학교를 찾아 나서게 했다.

예술경영에 몸을 담겠다는 것은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감성과 기본 소양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일반 대중의 다양한 요구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우

리는 예술과 비즈니스라는 상충되는 개념의 적절한 조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에 걸친 복합적인 이해와 경험, 또 그를 기반으로 한 융합과 통섭의 실험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커리큘럼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한예종의 예술경영과는 2008년도를 기점으로 새로이 협동과정으로 분리되면서 각 원을 아우르는 장르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에 굳이 적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다양한 실험과 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학교 교수진들의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결정적인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나는 본교의 입학에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나는 진심으로 이런 환경을 가진 학교에서 예술을 매개로 자유로운 소통을 실험할 수 있는 점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젊음이란 누구에게나 다름없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찰나로 머무는 이름이다. 그것은 너무 많은 가능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꿈을 꾸다. 그러나 그 꿈은 곧 '너무 많은 가능성'에 잠식되어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곤 한다. 그 지독한 꿈은 푸른 봄 내내 수없이 되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불안과 맞서고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면역력을 단련시킨다. 그런 아픔의 반복은 젊음이라는 열병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병을 온 몸으로 앓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연적인 것은 소통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극복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원하는 직업, 끈질긴 콤플렉스, 혹은 세상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이든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대화란 때때로 왜곡되어 진의를 굴절시키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런 위험성이 산재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필요하다. 수많은 대화의 시도를 통해 작고 가늘게 변화된 감정

의 진폭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예술학교보다도 뚜렷한 개성을 가진 각 분야의 학과들과 더불어 소통의 방법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학교는 문화예술 기획자를 꿈꾸는 나에게 푸른 봄을 이겨낼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비단 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젊음이라는 잘나를 이곳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소통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모진 세파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젊음을 아파하고 있다. 그 아픔의 에너지가 아름다운 힘으로 발전하기를, 그래서 더 넓은 소통의 세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나는 그리고 그들은 다만 바라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부는 하기 싫고 그림만 그리고 싶었던 나는...

김다정 무대미술과

감각이라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라 생각했고 훈련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은 일종의 독특한 감각들을 보편화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멀리했고 그저 내 자신의 감정에만 심취해 그림을 그리기 일쑤였다. 그리고 시각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나만을 표현하기 급급하던 나는 어느 순간 타인과 소통의 단절을 느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에 입학 후 4년이 지난 지금, 나는 뼈저리게 느낀다. 20살부터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환경은 진정한 내가 되도록 다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길에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었다. 무대미술이란 연극이 만들어지기 위한 한 부분이며, 자신을 표현하기 보다는 텍스트, 즉 작품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각 파트의 전공자들 또한 텍스트에 중심을 두며 대중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실기전공자들과 이론전공자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른 작품 분석 방향과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시각들을 함께 모아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한 작품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감각만 있어서는 안 된다. '대중과 소통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작업'이란 얘기는 대중에게 문화를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책임의식이 있는 나는 절대 혼자서는 대중과 소통할 수 없다. 관객에게 작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나는 그 작품에 언어로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책으로 남겨줄 사람이 필요하며 현 사회에 우리의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줄 사람과 그것을 현실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맨발로 뛰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새에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을 만들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관객들 앞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며 글로 남기고 행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달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나의 환경은 이제 곧 '사회'라는 더욱 거대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그 거대한 세상에서 곳곳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이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다. 실기에 왜 이론이 필요하냐고? 생각 좀 해라.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다.

나는 왜 예술이론을 배우지?

이지현 연극학과

고등학교 3학년의 나는 '그 무엇'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좋아해 연극반에 들기도 했고, 극단에서 연기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한편 무대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희곡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희곡을 읽으며 무대를 상상하고, 대사의 숨결을 느끼고,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기억들과 연관 짓는 일. 그것은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 이었고, 나는 그 놀이가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그 재미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다. 일반 대학에 있는 연극영화과의 두루뭉술한 커리큘럼을 보면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연극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애매하게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내 대학에 가야 할 때가 왔다. 예체능반에 들어와 혼자 인문계 공부를 하던 나는 '대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내가 고민하던 '그 무엇'의 정체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모 대학의 예술학과 수시를 보는 친구의 한 마디가 들렸다. "참, 한예종에도 예술학을 가르치는 과가 있는데." 한동안 '연극학과'의 정체를 망각하고 있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거기에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와 함께 자유롭게 예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를 흔들었다. 그날부터 수능도 뒤로하고 매진한 시험에서 운 좋게 합격했고, 마침내 나는 2007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의 신입생이 되었다.

입학하자마자 학교생활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연극원의 모든 과가 모여 연극을 만들고, 장구와

전통춤 배우고, 밤새 무대를 세우고 못질을 하기도 했다. 매일매일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연극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이듬해부터는 연극의 이론과 비평, 비평워크숍 등의 수업을 통하여 연극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학교와 외부에서 공연도 했다. 또 전통예술원과 무용원의 수업을 들으면서 연극과는 다른 관점으로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다. 뿐만 아니라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공통과목들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인문학 지식도 쌓아갔다. 공통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진중권 선생님의 '현대사상의 지평'이었는데,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매체 미학을 접할 수 있었다. 요즘 선생님과 그분의 수업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나에겐 지적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수업이었고 덕분에 예술에 대한 관심의 폭도 넓어졌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행복할 따름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했던 '이론 수업이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창의력, 즉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은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한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다. 창의성은 결코 야생성이 아니다. 틀을 깨는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틀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만일 지식의 축적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기존의 것으로부터 나아가는 행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새롭게 개발했다고 생각한 것들

이 이미 역사에서 술하게 이루어져왔을 수도 있고, 옛날에 사장된 형태일 수도 있다. 언어는 인간이 소통하는 수단이고 그 소통을 통해 이론이 만들어졌다. 이론은 결코 누군가의 설익은 생각처럼 단순히 하얀 바탕에 깨알을 흩뿌려놓은 것이 아니며, 나와 다른 이들과의, 나와 다른 시대와의 생각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이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인다면 이론 교육은 창의성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건대, 입학하기 전에 내가 고민하던 '그 무엇'의 실체는 '깊이'였다. 그때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문턱이었던 대학에서 나는 깊이를 찾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연극의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고 싶었고, 내가 느꼈던 재미의 속성을 깨닫고 싶었고, 희곡을 읽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미묘한 공간들을 탐구하고 싶었다. 한예종 연극원 연극학과는 나의 이러한 바람을 채워줄 유일한 곳이었다. 수많은 희곡들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고, 연극에 관한 모든 담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며, 언제나 극장을 곁에 두고 무대를 관찰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어디서든 실험해볼 수 있는 학교. 나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학교와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고 싶다. 내가 바라던 깊이의 탐구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그 깊이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연극을 새로운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다. 힘의 논리를 내세워 순수한 배움의 날개를 아무렇지 않게 꺾으려는 이들이 연극인이라는 이름으로 판치지 못하는 세상이 올 때까지 말이다. 나는 여전히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예술이론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1인시위 나가셨던 어머니의 후기

협동과정 서사창작과
정태원 학우의 어머니 최인선님

6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곳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아침 7시 부터 저녁 7시 까지, 12시간 동안 교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11시 부터 1시 까지 내가 피켓을 들고 서 있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은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했다. 그럴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기 바란다. 오늘 한예종의 문제는 교수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문광부 앞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다. 점심 시간에도 직원들은 별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나오는 직원들은 아예 1인 시위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한 사람만이 관심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박 순태 예술정책관이었다. 그는 학교를 없애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학교를 없애겠냐고, 정부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때 함께 시위를 하던 서사창작과 학생 한 명이 질문했다.

Q : 계속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입니까?

A :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너 중간고사 준비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자 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라고 대답했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시 한 번 속기에는 이

미 너무 많이 속았던 것 같은 기분이다. 자식에게 이런 대답을 듣고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 박순태 예술정책관은 자식을 자신들이 존폐를 거론하는 학과에 두고 있는 부모가 이런 말을 듣고, "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하겠구나" 하고 돌아가 편히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초등학교 무렵의 내 아들보다 둘러대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나가는 말처럼, 박순태 예술정책관이 말했다.

"서사창작과가 협동과정에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서사창작과는 협동과정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미래의 예술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술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소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폭넓은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한예종의 비전에 공감했기

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아들과 의논하여, 협동과정의, 서사창작과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자식이 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에 만족한다. 만약 협동과정이 폐지되고 서사창작과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협동과정 서사창작과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원 다른 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입장은, 또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 이것이 단지 서사창작과만의 문제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론과를 축소하고 협동과정을 폐지한다. 한예종을 '실기 위주의 전문 영재 교육기관'으로 재편한다. 문광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한예종이 그려 왔던, 미래의 예술을 위한 미래의 예술인을 양성한다는 교육 방침 자체를 기초부터 바꾸어 놓을 움직임들이다. 한예종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예종에 재학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일 문제이다.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 방침이 바뀐다면 그것은 학교 내부에서 교수, 학생, 학부모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었으니 학교의 교육 방침도 따라서 바꾸라고 정부 기관에서 지시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려 도리어 원래의 의미가 희미해진 것 같지만, 대체 정권이 바뀌고 문광부 장관이 바뀌었으니 학교도 교육 철학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학생을, 학부모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문광부가 그리고 있는 한예종의 '변화'에 대한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아진 듯하다. 1인 시위 참석을 위해 오래간만에 학교를 다시 찾았을 때, 건물 난간마다 황지우 총장 사퇴를 애도하는 노란 리본이 걸려 있었고, 벽마다 이번 문광부의 감사를 비판하는 담은 벽보가 붙어 있었다. 이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차례이다.

한예종에 이론과가 필요한 이유

이지현 연극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6개월에 각각 이론과가 있다. 연극원의 경우 개원 당시 예술사 과정 극작과 내에 이론전공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1998년에 연극이론과라는 명칭으로 독립하였다. 이후에 다시 연극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음악원과 영상원 역시 기존 학과(음악원 작곡과, 영상원 시나리오과)의 이론전공이 독립적인 학과가 되었다. 미술원(97년 개원), 전통원(98년 개원) 등은 개원할 때부터 각각 미술이론과, 한국예술학과라는 이름으로 이론과가 개설되었다. 이론과의 입학정원은 원내에서 가장 소수이다. 음악원, 연극원, 무용원은 5명, 영상원, 미술원, 전통원은 10명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한예종은 이론과를 무분별하게 확장해왔다. 이미 영화 아카데미가 있는데 영상이론과 같은 게 왜 필요하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수의 정원으로 꾸려져 각원마다 한 과가 개설된 이론과를 '무분별하게 확장해왔다'고 언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다. 또한 한국영화아카데미(영화진흥공사 부설)는 교육기간이 1~2년으로, 4년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예종과는 성격이 달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는 영상이론전공이 없을뿐더러, 이곳의 애니메이션 연출(99년)과 프로듀싱전공(2005년)은 영상원에 애니메이션과와 영상이론과가 생긴 이후에 신설된 전공들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한예종에 관한 문화부의 감사결과 및 문화미래포럼 인사들의 언급들 가운데 "한예종 이론과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국내외 연극학과들의 실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무분별한 이론과의 확장', '학력인플레를 부추김'과 같이 유연비어처럼 언론에서 떠도는 말들이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론학과에 대한 오해, 혹은 무지

한예종 학생들은 지금까지 감사결과에서 '이론학과 축소 및 폐지' 부분을 언급한 것에 관해, '이론학과'라는 표현을 당연히 6개월 내 이론전공 학과로 여겨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이론과의 범주는 그야말로 일부분에 불과했다. 처분요구서에서 언급한 <2009년도 이론학과 신입생 출신고 현황>을 보면 음악원 2명, 연극원 17명, 영상원 75명, 무용원 5명, 미술원 10명, 전통원 9명, 협동과정 15명 등 모두 133명이 올해 '이론학과' 신입생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한예종 학생이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법하다. 연극원의 이론학과 신입생이 17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연극학과 뿐 아니라 연출과와 극작과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연기과와 무대미술과 신입생을 제외한 전체 숫자이다. 영상원의 경우를 보면 2009년 영상원의 예술사 신입생은 총 87명인데, 이 중 애니메이션과 12명을 제외한

영화과, 방송영상과, 멀티미디어영상과, 영상이론과 신입생의 총합으로 나온 숫자가 75명이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하며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이론전공에 포함되는 것인가? 희곡을 쓰고 공연을 연출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던가?

‘사물에 관한 지식을 논리적인 연관에 의하여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이 이론의 사전적 정의이다. 적어도 이론학과에 대해 알기알부하려면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단어에 관한 개념조차 희미한 이들이 감사결과로서 ‘이론학과 축소 및 폐지’를 내세우는 점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처분요구서의 다른 내용들도 이처럼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임의대로 수치를 왜곡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혹여 특정한 ‘테두리’ 내에서 의도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이론 교육 - 연극학과를 중심으로

처분요구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능력에 관한 언급은 미뤄두기로 하자. 그보다 핵심적인 사안은 문화부에서 정의하는 ‘이론과가 축소/폐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한 것이다. (사)문화미래포럼의 정재형(동국대 영화영상제작학과)교수는 “한예종이 설립된 취지는 원래 예술대가 하지 못하는 특수하고 작은 범위의 교육을 맡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한예종의 설립근거를 축소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예술대’, 즉 기존 우리나라 사립

대학교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문화미래포럼의 대표 정진수 교수는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 “4년제 대학에서 제대로 된 예술 실기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한예종 설립에 공감했던 것인데 스스로 ‘학력 인플레이’를 부추기고 다른 대학을 닮아가는 것은 한예종의 자가당착”이라든지 “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반 예술계 대학들은 예술 실기 교육을 원천적으로 감당해 낼 수 없게 되어있다. 가령 발레나 연기 또는 성악을 3학점 일주일에 3시간 가르쳐서 무슨 교육적 성과를 내겠는가. 전임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과외 지도를 해서 그나마 꾸려가고 있다. 그러니 한예종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등 4년제 대학에서 예술 실기 교육이 원천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며 한예종의 설립 이유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몸담고 있는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2001년 신설)의 교육목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 예술실기 교육이 어렵다고 하는 그의 말과 달리, 교육목표에서는 첫 번째로 “연기 및 연출 전공에 국한한 학과로 거듭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과 명칭도 ‘연기예술학과’라 칭해 실기 위주로 확연히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재직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는 왜 자신들이 ‘원천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실기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일까? 한예종이 예술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반대하려면 당연히 자신들이 이론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야 옳지 않은가? 종합대학의 예술이론교육이 부실한 예는 국내 사학 중 연극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앙대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앙대 연극학과 홈페이지에 나

와 있는 입학정원 표를 보면, 53명의 정원 중 연기전공이 28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공연영상미술전공이 18명, 이론/연출/기획을 한 데 묶어 7명으로 선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술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4년제 대학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국대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의 목표는 배우 양성 및 전문공연예술가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중앙대 대학원 연극학과 요람과 일에서는 대학원의 세부전공이 연극학(Theater Study)으로 되어있는데, 5명의 교수들 중 연극학을 전공한 이는 고승길 명예교수 한 명 뿐이며 다른 교수들은 연출, 연기, 무대미술 등의 전공으로 연극학 대학원의 교육에 적합하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5명의 교수 모두의 최종학위가 석사학위이다. 박사과정까지 지도하는 교수들의 학력이 모두 석사에서 마쳐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간다. 국내 대학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그들이 과연 당당하게 국립예술학교인 한예종에서 이론교육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연극학과라는 이름으로 학문교육을 전담하는 대학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진수 교수의 ‘학력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문화미래포럼이 언급하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예술이론과 비평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대학에서 예술교육이 실기위주로 이루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술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립예술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한 주장이다.

‘예술학교’의 진정한 의미

‘스타니슬라브스키’, ‘아포넵 아르프’, ‘그로토프스키’, ‘메이어홀드’ 이들은 세계적인 연극연출가들로서 현대의 대표적인 연극이론을 만들어내었다. 연출가의 현장 작업과 그로부터 이론이 창출되는 흐름은 현대연극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러므로 이론과 예술창작은 동떨어져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는 매듭처럼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생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오태석, 이윤택 등의 연출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메소드를 이론으로 정립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이론의 기반이 탄탄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론을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은 자명하다. 국립예술학교에서 각 원마다 이론과를 두어 예술현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론가를 양성한다는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면, 앞서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행해온 예술교육이 자생적인 이론을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왔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바란다.

5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한예종을 강남·강북 캠퍼스로 나누어 “‘강남 한예종’이 예술 실기 교육 위주의 전문학교(컨서바토리)를 지향하는 데 비해, ‘강북 한예종’은 이론 교육과 몸집 불리기를 통해 사실상 예술종합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구분 지었으며, 또한 문화미래포럼 소속인 정용탁 전 한양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한예종은 정확히 스쿨의 개념으로 예술 실기 영재교육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들에서 언급한 컨서바토리 혹은 스쿨에 대한 개념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별로 차이를 보인다. 오랜 기간에 걸쳐 예술학이 발달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프랑스에는 파리3대학, 파리8대학 등을 비롯해 예술학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지만, 이 대학들의 연극학과, 무용학과라는 것은 각각의 예술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파리3대학 연극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연극사·극작술·문화연구·연극미학·아틀리에실습 등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분명 연극학적인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배우를 희망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립 연극원인 CNSAD(고등연극학교)의 경우, 배우와 무대감독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종합대학에서 이론교육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는데, 예일대의 경우 종합대학이지만 대학원에 연극원(School of Drama)을 두어 다양한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다. 예일대 연극원 홈페이지의 글을 소개하면 이렇다.

예일대 연극원은 연기, 디자인(세트, 의상, 조명, 음향), 연출, 드라마터지와 연극비평, 극작, 무대감독, 기술디자인 및 프로덕션, 극장경영 등으로 이루어진 연극장르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원 과정의 전문적인 컨서바토리(conservatory)이다.

예일대 연극원은 각각의 학과마다 석사학위를 부여하며, 드라마터지 및 연극비평에는 박사학위

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소개하는 글에 분명히 언급된 ‘컨서바토리’라는 단어이다. 이들은 한예종 연극원보다도 많은 학과를 두고 다양한 전공들이 서로 모여 예일대 레퍼토리극단을 만들어 공연을 하고 있다. 연극은 희곡이라는 문학 장르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 예술이자 본질적으로 협동작업으로 만들어지며,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의 공존과 교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CalArts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예술학교(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의 경우 아예 School of Critical Studies라고 하여 비평원이 하나의 독립적 스쿨로서 존재한다. 이 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비평원에서는 대학원에서 Writing Program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평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전통적인 문학 형식 및 학문적 글쓰기뿐 아니라 뉴미디어매체에도 초점을 두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글쓰기 교육을 지향한다. 이렇듯 예술학교에 하나의 원로까지 당당히 자리매김한 CalArts의 비평원은 지금의 한예종에게는 요원한 바람일 뿐이다.

예술교육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에 대한 범주와 정의에는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교묘히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에까지 수렴시키려는 행위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또한 예술학교를 뜻하는 ‘컨서바토리’에 대한 매우 제한된 정의와 ‘철저한 스쿨의 개념’ 같은 실상 우스울 뿐인 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언론에서 들려오는 상황은,

CalArts나 예일대 드라마스쿨이 가진 자유로움과 유연성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지금처럼 일부 인사들이 ‘한예종은 실기만 교육하는 영재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들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설치령에서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는 일부분만을 떼어와 ‘현재의 한예종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용색한 주장을 펼치기 이전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체를 조망해 볼 때 과연 무엇이 올바른 발전방향인지에 관한 고

민을 그들 스스로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임의로 이론학과의 범주를 설정해놓고 ‘이론학과 축소 및 폐지’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 인터뷰에서 유인촌 장관은 “학생들이 더 잘 공부하고 좋은 예술영재로 키워질 수 있는 여건을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확실히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여건이 과연 기술적인 교육만을 강조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사안을 재고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왜 영상이론인가

탁은창 영상이론과

예술사에서 본 이론과 실기의 관계

미술은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했다. 현대 미술에서 가장 큰 사건들을 꼽으라면 의견이 분분할 터이지만, 분명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의 <샘>이 그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남성용 변기를 뒤집어 전시한 작품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 작품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이론과 실기라는 문제가 잇닿아 있다.

뒤샹의 <샘> 이후의 모든 미술은 거칠게 말해서 개념미술이다.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가 도시의 고독한 일상의 모습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어 대중과 비평의 찬사를 얻었을 때, 물론 사람들은 호퍼의 기술적 완성도 때문에 그를 좋아한 게 아니다. 앤디 워홀 Andy Warhol이 <엠파이어 Empire>에서 상영 8시간 내내 엠파이어 스

테이트 빌딩을 한 것으로 천천히 보여줄 때, 우리는 놀라운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술은 자신의 역사와 싸워야 하며, 아울러 그를 옥죄는 개념과 싸워야 한다.

뒤샹의 <샘>에는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이야기가 있다. <샘>은 당시 전시회를 주관한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 이사회에 결정으로 전시되지 못했다. 뒤샹은 이사회에 멤버였고, <샘>이 전시되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사회를 사임했다. 이후 뒤샹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로 인해 이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게다가 <샘>은 이후에 분실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뒤샹이 친구이자 유명한 사진작가인 스티글리츠 Alfred Steiglitz에게 촬영하도록 한 사진이다. 이렇듯 <샘>은 작품 그 자체로 인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을 둘러싼 개념과 비평이 이 작품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나아

가 현대미술의 지평을 변화시켰다.

예술사에 남는 유명한 작품은 결코 그 자체로 우뚝 선 것이 아니다. 유명한 작품, 유명한 사조에는 그만큼이나 유명한 이론가 혹은 비평가가 존재한다. 멀리 르네상스 미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알베르티의 『회화론』을 같이 떠올릴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서구의 미술을 지배했던 원근법에는 부르넬레스키라는 이름을 뒤따른다. 가까이 초현실주의를 생각할 때 프로이트와 앙드레 브르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예술은 이론과 실기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된다. 뒤샹의 예에서 드러났듯 현대예술, 특히 모더니즘 경향의 예술은 매체의 자기 반영성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 매체의 기술적 속성에서부터 사회적 위치까지 모든 것이 예술작품 생산의 재료가 되는 상황에서, 이론적 배경 없이 예술을 한다는 것은 순진한, 혹은 그래서 기만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았다. 뒤샹을 비롯한 현대예술의 위대한 작가들은 하나같이 또한 위대한 이론가들이다.

영화와 이론

영상이론을 이야기하는 지면에서 미술을 위시한 다른 것들에 대한 서론이 길었던 까닭은 영화는 그 태생부터가 현대예술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초기 영화의 작가들은 모두가 영화이론가들이다. 그들은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고민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들을 영화 기술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성싶다. 차라리 그들을 '영화가'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다. 어쨌든 1895년이라는 생년을 가진 영화는 매체의 자기 반영성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

작된 이후에 탄생한 예술 장르이니만큼, 영화의 제작자들은 실기와 이론을 구분해 영화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기서는 다만 두 개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Sergei Eisenstein과 장뤽 고다르 Jean-Luc Godard. 영화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들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이론가들. 에이젠슈타인은 소비에트 형식주의를 바탕으로 영화의 기술적, 정치적 가능성을 시험했다. 동시에 이를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아직도 영화이론을 배우는 학생들은 에이젠슈타인을 공부하고, 그에 관한 논문 역시 계속 나오고 있다. 고다르는 누벨바그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프랑스의 영화 혁명 이후에도 그는 영화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 고다르의 영화적 탐구는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철학과 미학, 역사학, 그리고 사회학 등을 넘나든다. 이 둘에게 영화에 관한 이론과 실기라는 두 개의 요소를 잘 조합한다는 평가만으로는 모자라다. 그들에게 이론과 실기는 영화에 탄탄하게 묶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논의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 에이젠슈타인과 고다르에게 있어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에이젠슈타인은 스크린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또한 영화에 무성영화에 음향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음향을 자신의 몽타주 이론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진지하게 천착했다. 고다르는 비디오 장치가 등장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매체의 새로운 기능과 환경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이 두 명의 위대한 작가/이론가는 주저하지 않았다. 작가/이론가이기에 그들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 변화를 영화 내에 적극 반영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영화는 불 꺼진 상영관 안에서 스크린에 투사된 환영적 이미지 안에 갇힌 무엇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화는 그들에게 스스로 증식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명체와 더 닮은 무엇이었다.

영화이론이 아닌 영상이론이어야 하는 이유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매체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영화는 더 이상 '카메라 옵스큐라(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않다. 전선 혹은 무선을 타고 전세계로 빠르게 전송되고, 야외나 가정의 거실뿐 아니라 사람들의 손바닥으로 옮겨 다닌다. 나중에는 뇌에다가 직접 신호를 보내서 재생될 수 있다고도 한다. 영화의 내용 면에서도 기존에 영화가 아니었던 것들이 영화가 되고, 영화였던 것들 것 영화가 아닌 것으로 변이된다. 누구는 영화의 혁명이라 부르고, 누구는 영화의 죽음이라 부르지만, 뭐라 부르건 영화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영화, TV, 멀티미디어, 애니메이

션 모두가 이제 영화다. 우리는 이처럼 달라진 영화에 영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은 따라서 변화된 매체 환경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발맞추고 있다. 영화만큼이나 방송,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장르간 소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상이론과는 영상원 소속의 이론과로서 이러한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그 함의와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애쓰고 있다. 매체와 환경, 그리고 영상의 역사를 고민하고, 아울러 실기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서로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한다. 만약 영화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화이론과라 불려도 좋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기존의 분과적, 고답적 이해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상이론과이어야만 한다. 영화이론이어도 좋다고 누군가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 영상이론과는 그의 시대착오적 언술이 자신의 지적 태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준비가 되어있다.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에 대하여

장미술 한국예술학과

얼마 전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이래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부에서 지적한 12가지 사항 중 하나인 이론과 축소/폐지 문제는 현재 해당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수업과 학습이 어려울 만큼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다. 곧 없어질 수도 있는 학과에서 하루하루 마음 줄이

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채, 극단적으로는 '학문분야의 축소'로 귀결되는 방식을 택하여 교육시스템을 흔들고자 하는 관 및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접하며, 이제는 학습권 억압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정부차원에서 주관하는 예술 관련 교육은 물론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들고 있다.

특히 한예종은 '실기 위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곳이므로 이론과를 축소/폐지해야한다는 집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는 어떠한 점에서 자신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논증적이며, 비전문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그 정부부처와 이유는 다르지만 분명 같은 목표를 향해 있는 단체들이 그러한 비합리적 토대 위에 서있는 주장을 살짝 빌려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감사에서 지적인 '이론과'에 해당하는 한국예술학과는 어설플 신념과 권력욕에 가득 찬 이들에게 교수 자리를 꿰차라고 만든 학과가 아닌, '한국전통예술'을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오늘날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추진·설립된 학과이다. 이것은 전통예술원의 한국예술학과를 견제하고 있는 타 국악이론과나 예술학 또는 미학과의 커리큘럼을 비교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예술학과와 종종 비교되곤 하는 타 종합대학의 국악이론과가 전통예술을 오로지 '음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한국예술학과는 전통적인 樂(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통예술에 접근한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학과에서는 타 국악이론과에서는 접하기 힘든 학문 분야를 필수적으로 공부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1

더불어 한국예술학과와 종종 비교되곤 하는 타 종합대학의 예술학과, 미학과의 경우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에 접근한다면 한국예술학과는 공연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에 접근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통'이라는 폭넓고도 지배적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진다고 할 수 있다.*2

실제로 학생들은 이 취지에 걸맞게 1-2학년 동안 전통예술(악, 가, 무) 중심의 역사, 전승 형태 및 그 연구를 위한 기초 문헌 분석, 외국어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미학과 예술사, 대중문화를 공부한다. 그리고 3-4학년에는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권위자를 지명하여 1:1 전공수업을 한다. 그밖에 북한공연예술, 논리학, 문화연구, 현대사상 등 이론 전공자로서 필히 학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정책, 공연기획 등 학습한 것을 응용하기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한국예술의 발전을 위해 학생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밖에 언급하지 못한 다른 과목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한국예술학과와 커리큘럼은 다른 대학의 국악과, 철학과, 미학과 등과 상당 부분 겹쳐지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접합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유연하면서도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시스템에 매료된 수많은 학생 및 직장인들이 두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종해 마지 않는 제도권 내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스스로없이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한국예술학과를 택하기도 한다.

각 원마다 존재하는 '이론과'와 타 이론과 및 실기과의 교과를 넘나들며 공부할 수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공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 의미와 효과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과 그 배후세력이 주장하는 한국예술학과를 포함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내 이론과의 축소/폐지 명령은 한예종 학생으로서 감정적인 저항을 넘어 투쟁으

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몇 번을 양보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육이념을 제치고서라도 나라의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처에서 결정하는 수준 낮음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민주주의의 역행과 더불어 예술교육 역시도 20년 전으로 역주행하는 모습에 침묵할 수 없음을 밝힌다.

'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예술'이라 불리는(혹은 잠재적으로 불릴 여지가 있는) 범위를 제대로 못 이해하고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며(그것이 정치적 신념 차이로 인한 적대감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념으로 좌파를 청소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목적과 한예

종의 존재가 자신들의 설 자리를 좁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단체(문화미래포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의 노파심의 합작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간과한 채, '경험적' 전문가(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글만 몇 편 써본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를 몰아내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력에서 단절을 느낀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명령 및 여타 단체의 한예종 찢어발기기 프로젝트가 감탄할 만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얻은 유연한 사고와 폭넓은 관점으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위해 우리들이 배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모든 이론과 축소/폐지 통보를 기각 한다.

*1 한국예술학과에서는 '국악이론과'에서 접할 수 없는 동양예술사상사, 서양예술사상사, 한국무용학, 한국연희학, 문화예술정책, 문화연구, 현대사상, 예술공연기획, 아시아전통공연예술, 한국현대논리학, 전통회화, 한국대중예술론, 북한공연예술 등의 교과를 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국악과가 이론과를 따로 두지 않고 실기자와 이론자를 함께 뽑아 대학과정 4년 동안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커리큘럼 안에서 학습시키는데 반해, 위에 언급했다시피 한국예술학과는 전통을 기초로 하여 동·서양의 예술과 그것의 인문학적 토대를 이미 저학년 때부터 다져나간다. 오로지 '국악'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전통'의 권위를 부여받고 이를 보존, 계승하거나 퓨전음악을 통해 전통을 재창조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시류를 읽어내는 안목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예술학과에서는 폭넓은 학습을 통해 다른 분야와의 소통을 고민하고, 전공심화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수용하여 미래를 제시함과 동시에 예술가들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존재기반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예술학과는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공연예술의 학문적 연구를 1차 교육목표로 삼고, 나아가 전통예술 전반에 관한 역사적, 철학적, 미학적 규명을 통해 미래 한국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고, 아울러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이론정립과 문화이론을 통해 새로운 공연양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대 예술현장에서 창작과 이론의 상보적 관계가 왜 중요한가?

김정복 (미술이론과 예술사 졸업/예술전문사 수료)

전지구화 시대, 디지털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창작자(혹은 연출가)들은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혼합매체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이종교배)적인 감수성,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는 트랜스적 상상력,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사소한 노이즈적 신호를 자신들의 작업 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4월 내한한 에이문타스 네크로슈스의 <파우스트> 공연을 보더라도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장르간의 경계허물기, 인문학과 뉴미디어 미학의 접속을 통한 예술적 실험, 멀티플한 감각이 융합된 통합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5월 30일 백남준아트센터 오버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된 Tacit그룹의 <청중에 대한 오마주> 공연은 백남준과 플릭서스 그룹에 대한 경배와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에 대한 경의를 담은 실험적인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였다. 미디어 아티스트/현대음악 작곡가/현대음악이론가 장재호, 테크노 뮤지션/작곡가/사운드 아티스트 이진원, 인디음악 밴드 보컬/작곡가/프로듀서 이언 등이 주축이 된 Tacit그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알고리즘 아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예술적 아이디어를 응용한 테트리스 게임,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시각적 이미지의 시각적 충돌, 관객과의 즉흥적인 소통을 통한 인터랙티브 대화 등으로 어린이와 청장년층의 호응이 높았다. 그런가하

면, 2009년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아르코 미술관의 <대학로 100번지>전시는 다양한 연령대의 30명의 작가들이 유화, 비디오,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시낭송, 음악공연 등을 통해 아르코 미술관의 30여년의 시공간적 변모를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시대 예술생산의 장(場)은 단일한 고리로 묶어낼 수 없는, 다채로운 영역이 새로운 매체와 만나는 혼성공간, 또는 빈틈을 잇는 사이의 공간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다성적인 목소리가 겹칠 수밖에 없다.

본 발표자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미술이론과 예술사 과정,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술이론과 예술전문사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서 풍요로운 경험을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을 누렸다. 예술사 과정 중에는 미술원 뿐만이 아니라, 연극원, 영상원, 전통예술원, 무용원, 음악원 등의 여러 수업을 수강하거나 청강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서 통합적인 안목으로 예술창작 과정을 바라보고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배워나갔다. 그런 다음,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전문이론을 심화하고 나서 평론공모를 거쳐 예술창작 현장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크리티컬 작업을 하고 있다. 작품을 분석하고 감식하는 비평 작업 역시 창작작업만큼 '크리에이티브'한 사고가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여러 장르의 예술생산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탄탄한 자산이 되어주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가령, 앙도넝 아르도의 잔혹이론을 빌어 연극성이 강한 천성명의 작품을 이해할 때, 빌렘 플루서의 매체 현상학을 빌어 디지털적 작업 도구로 시공간성을 분절하는 이배경의 작품을 이해할 때,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티즘 미학을 빌어 영화와 사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효진의 사진작업을 이해할 때, '소녀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만화적 상상력과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결합된 구명선의 드라마적 팝을 이해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창작품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본 발표자가 소속된 미술이론과의 경우, 예술사/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동서양의 고전기 예술부터 현대예술까지 이미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동서교섭사를 통해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의 교류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며 인류문명이 오랜 시간의 축적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왔음을 배운다. 각 학년마다 10명의 인원이 세미나 발제식 수업으로 학생 스스로가 발표주제에 맞게 수업을 준비하고 교수님과 동기들간 의견을 교환하는 강도 높은 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실력을 쌓는다. 전시기획과 현장학습 과정에서는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등 현장견학을 통해 실무자/전문가로부터 학습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짜보는 훈련을 하면서 예술작품을 세상과 매개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을 실현한다. 미술이론과 수업의 꽃은 봄과 가을 전국의 유적지 혹은 예술현장을 현장학습하는 답사수업이다. 봄에는 3박 4일, 가을에는 1박 2일, 예비답사와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학교 안에서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은 예술을 배운다는 것, 혹은 예술작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일상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미술이론과 수업에는 조형예술과, 영상이론과, 극작과, 음악학과, 한국예술학과 등 다른 전공 학생들이 수강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술이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과, 자연과 만나는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다. (예비)창작자 혹은 (예비)연구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육구에 따라 장르와 장르 사이, 창작과 이론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현상은 오늘날 예술교육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준다.

현대 예술가들은 단순히 기예만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하는 방식,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고민함으로써 관람자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미적경험을 하게 한다. 창작자들은 다양한 현대철학, 예술이론, 인문사회이론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현대인의 복잡한 삶의 이면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창작 작업에 반영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창작의 현장과 예술이론을 분리해서 다루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창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동시에 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예종 사태에 대한 essay

박해성 애니메이션과

5월 24일

변희재가 할 수 없고 예종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새 생각한다. 노무현에게 가능했고, 이명박에게 불가능 한 것은 무엇인가. 황지우 총장에게 가능하고, 유인촌씨에게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싸움에 승산이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 고통을 삭여낼 수 있는 능력.

국립오페라합창단의 거리 공연이 아름답지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슬퍼하고 있지만 겉으로 전혀 슬픔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아프고 슬퍼해야 한다.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5월 28일

아즈마 히로키가 쓴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을 읽었다. 일본 오타쿠들의 변천과, 그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글들이다.

70년대 학생들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이상에 빠졌었지만, 전공투의 몰락으로 인하여 몰락한 이상을 대체할 것을 찾게 되었다. 그것이 '건설' 류의,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역사. 그러나 '예

반계리온'에 이르러서, 일본 망가류 특유의 정교한 '세계관'은 형해화 된다. 남은 것은 '캐릭터'와 '모에'. 그리고 캐릭터의 원작자와 수용자의 2차 창작물이 사실상 구분이 모호해지는 자기 분열 증식의 시대로 넘어간다. 내가 작년에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보고 왔다. 수많은 '모에'들, 피규어로 만들어져 손안에 쥘 수 있는 미소녀 캐릭터들, '한국 만화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느끼게 했던 그러한 문화이다.

요새 오타쿠들의 대세는 미소녀게임이다.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캐릭터들을 범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데, 재미있는 것은 게임을 즐기는 오타쿠들은 매번 다른 공략을 할 때 마다 상대가 되는 여성캐릭터들을 운명적이고 순애보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굉장히 모순된 현상인데 자신은 모순을 별로 안 느낀다. 온갖 엽색을 소재로 한 게임을 즐기면서도 실제 성적인 취향은 보수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인용하자면, 후기 자본주의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되어간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동물에게는 욕구만 있지만,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욕구'란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그것과의 관계에서 충족되는 단순한 갈망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게 되듯 결핍-만족이 반복되는 단순한 회로이다. 그러나 욕망은 훨씬 복잡하다. 욕망은 타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

랑 받길 바란다) 인간은 이렇게 서로의 욕망을 인정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끊어지고 각자가 각자의 결핍 - 만족의 회로를 달아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성욕을 느낄 때, 미소녀게임을 하면서 자위를 하고,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클릭을 하는 것 만으로 운명적인 사랑의 감정까지 느낀다면, 굳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연애 상대를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게 오타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라는 거다. 개개인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관계 설정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세련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전혀 안 보고 세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문과 인터넷만 보고 세상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 누가 더 위험할까? 후자가 더 위험할 것이다. 옛 어른들이 신문이나 미디어를 전혀 접하지 않고 얻은 체험적 진실은,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요새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 개개 웃을 노릇이다. 취향만이 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취향이 확고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취향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너무 쉽게 흔들린다.

자신의 삶을 서사화 하여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어째서 드문가? 방안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 모든 팩트를 수집하고(그걸 팩트라고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타쿠스럽다) 그걸 조합하여 글을 쓰지만, '팩트'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글을 쓰는 변희재 따위가 이 사회에

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미치고 발광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예술가들은 왜 다들 골방에 처박혀 있는가?

'인간이 되지는 못 해도 짐승이 되지는 말자'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 말한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짐승이면 짐승이지,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은 그게 짐승이지 인간인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6월 4일

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입학처장 되시는 분이 학교에 와서, ETC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석사 과정에 대해 소개를 하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ETC에 가서 일년 반 공부를 더 하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온다.

ETC라는 곳이 우수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요새 유행하는 통섭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우리 과 석사를 나온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는 올해 9월부터 이 학교에 다닌다. 한국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것은 대개 장래가 불투명하고 생계가 막막한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10년 간 전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어렵잡아 수만 명 일텐데도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ETC를 가면 학교를 다니면서 픽사나 드림웍스, EA같은 굴지의 회사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초강대국 미국이 망해간다지만, 아

직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는 '꿈과 기회'의 땅'인 것이다.

입시설명회가 끝나고 같이 들었던 형들이 발코니에 나와 담배를 푹푹 피웠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인 거구먼' 우리 학교에서도 내년 '통섭원'이 열릴 예정이었다. 황지우 총장이 정부의 압력으로 일찍 사퇴하지 않았더라면 ETC와 비슷한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도 시작 되었을 것이다. 사상이나 예술, 학문의 자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 하는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학교의 발목을 잡았다. 이제 학생들은 수업도 못 하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해야 할 판국이다.

문득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에서 살아가고 있을 내 또래의 젊은이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총과 폭탄을 들고 폐허가 된 도심 사이에서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겠지. 그들은 어쩌면 나보다 훨씬 깊은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펜마우스와 컴퓨터를 쥐어준다면 나보다 훨씬 깊이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에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나서 '평생 자기 좋은 일만 해도 되는' 친구들과 어울릴 것인가. 남아서 불안한 생계에 시달리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작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ECT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랜디 포시는 작년, 책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2007년에 학교에서 한 '마지막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강의록이 우리 나라에 책으로 번역 되어 나왔다.

'어렸을 적 꿈을 잃지 말라' 는 말이 그 책에 적혀 있는데 '그는 살아 생전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이 책 웬지 사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한다. 나는 최고의 지름길은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특집: 한국예술종합학교 "ART IS OUR POWER"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지난번엔 만예종 여론과 폐지 논란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만예종 내 만 여론과 폐지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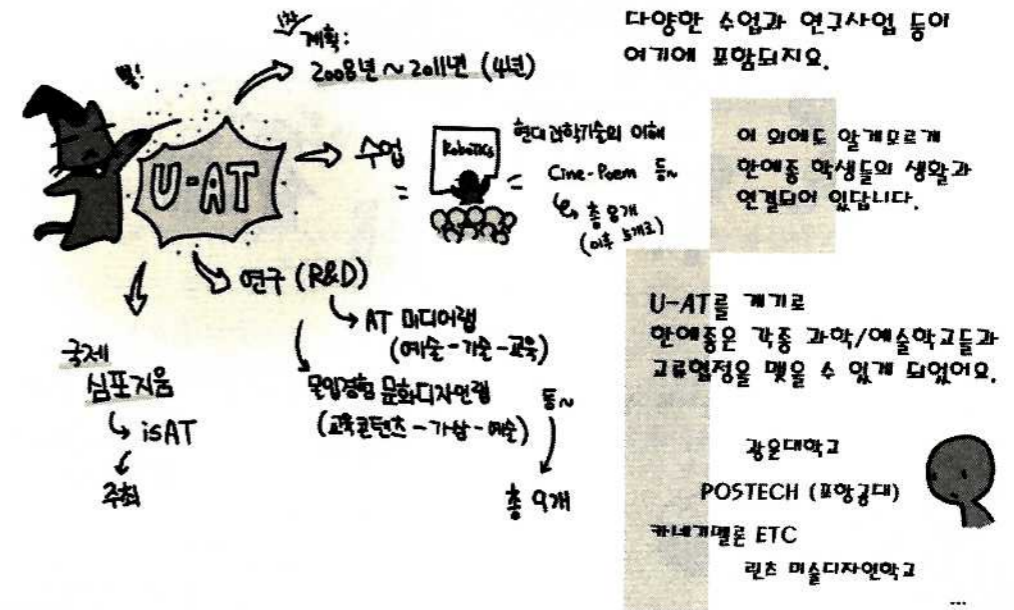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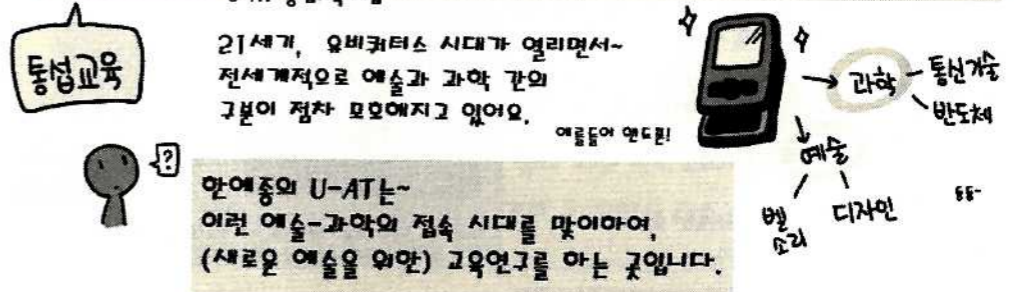
POSTECH U-AT 통섭교육을 담당 중단할 것. K-ART

문화부가 통보한 또 하나의 사안.

이번엔 U-AT 사업 중단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U-AT = Ubiquitous Arts and Ubiquitous Technology

U-AT 통섭교육사업



박술원 영상이론과



그럼 왜 문화부는 U-AT사업의 중단을 주장하는 걸까요?

문화부 몇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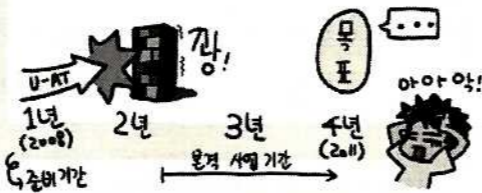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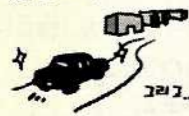
“U-AT에 32억원을 배정했었지만, 성과가 생각보다 적었다.” 라고...

하지만 자세히 볼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
2008년,
문화부장관이 안에중을
방문합니다.



곧바로 그 다음에 안에중의 U-AT예산은,
문화부에 의해 0원이 되어버리요
U-AT은 원래 4년 계획이었지만...1년 만에...



때문에 안에중은 당장 U-AT사업
규모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능한
분야였다!

→ 성포거점 (isAT)
↳ 국내 최초
‘살맛 원거 퍼포먼스’ 성공

2009년 5월...



당장 관두려
말 안들려?
근대 사실...예산지원을 더이상 안 하는 연구사업을 없애라고,
정부가 명령할 권한은 있습니다...권력 남용이요.



하지만 문화부, 보수단체와 보수연관들은
U-AT사업을 거론하며 안에중의 ‘구조조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오류를 보이죠.

32억 이거든?
효율적 관리가?
예산이 뭐가 뭐인 이상?
권력 주머니...
/중

더 웅담만 건,
정작 이들도 U-AT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안에중을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 정치사와 및 예술계의 문제와 연결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머글에 맴돕니다.



연예를 학생들은 다시 말합니다.
“Art is our power”

우리가 공부할 6 일까 애드세요,
우리가 어찌 없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학교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아 예술교육의 허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만의 독창적 선진적 교육 시스템으로 지난 10년간 국내외 우수공쿠르 1위 입상자만 280여 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근대 수용 120년만에 해외에 유학가지 않고도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함은 물론 유럽, 미국, 아시아 등 해외의 예술영재들이 유학 오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예술 명문이 되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의 전문예술가 양성'을 미션으로 정립하고, 향후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아시아 예술교육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세계 예술교육의 중심에 서기 위한 국제 협력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 예일 대학교 등 19개국 41개 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교류를 늘려 이들 대학교와 공동 연구나 창작 활동, 계절학기 공동 워크샵,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교육 콘텐츠 교환 등 왕성한 상호교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실시해 온 AMA(Art Major Asian Scholarship)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하여 매년 100명 이상의 아시아 예술인재들을 유치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와 한류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유일의 국립 종합예술학교

우리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은 세계 정상급 교수진, 실기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수법, 세계 정상급 교육시설을 갖추고 이 시대를 감당할 새로운 창의력을 지닌 젊은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 예술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992년,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와 예술계의 염원에 따라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6개 분야의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예술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국가 문화발전을 이끌어가는 종합 예술대학 체제

국내 최초의 공개 실기 시험, 절대 평가제에 의한 소수 정예 선발, 실기능력 평가 중심의 시험 방법 등 특차 전형으로 치러진 음악원 입시는 우리나라 예술대학 입시의 모범적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교 이후 음악원의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종합 예술대학 체제로 본격 돌입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3일 연극원을 개원하여 예술사 과정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같은 해 음악원 예술전문사 과정도 개설하였습니다. 이어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차례로 개원함으로써 2000년 3월에는 6개 원 체제의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과정을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의 탈장르화 복합 장르화 경향에 따른 장르 융합교육을 위해 2007년 3월 협동과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예술교육의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닌 6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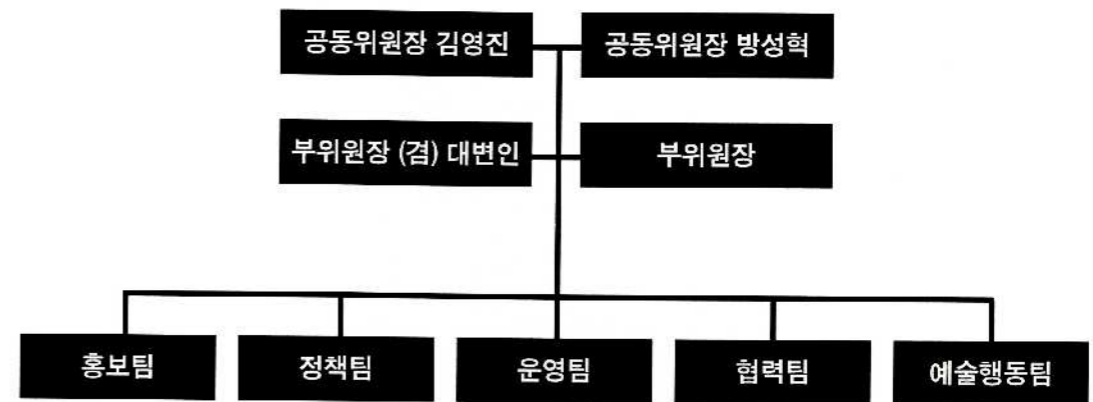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의 6개 원과 하나의 협동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원이 서양의 콘서바토리처럼 전문성을 지닌 독립된 예술교육 기관이지만, 통섭교육이라는 커다란 전제 아래 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각의 전문성을 다양하게 심화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독특한 교육 체제는 전문화 세분화해가는 세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 예술교육 기관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학제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 도입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줄리어드 음악원,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파리 고등 음악원을 비롯한 많은 음악원들과 영국 왕립 연극원, 러시아 국립 연극학교와 같은 여러 연극 학교들, 그리고 그 외 세계 유수의 실기전문 예술교육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K' 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대위 정보 및 연락처, 클럽 주소, 공지사항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예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전체의 자유로운 토론 끝에 발족했습니다. 비대위 집행부와 함께 한예종 내의 다양한 자치단체와 학생단위가 수평적으로 연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수협의회, 교직원노조, 동문회, 학부모회와 함께 "한예종 사태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knuatheory>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loveknua>

대표 이메일 loveknua@naver.com

부위원장 겸 대변인	이현빈	0505-814-0414 lhb_vidala@hanmail.net
보도자료 요청 및 문의	홍보팀장 김다린	010-8990-6571 1012008@naver.com
외부단체 협조/연대 문의	협력팀장 김주현	011-9576-7124 kjhyun84@hanmail.net
퍼포먼스 및 예술행동 문의	예술행동팀장 정하영	010-2013-5271 gkdud0414@naver.com

'한예중 사태' 자료집 1
〈Art is our power〉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비대위는

"한예중 사태" 해결을 위해

2009년 5월 20일 발족한,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적

학내 기구입니다.

발간일 | 2009년 6월 6일

발행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편집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정책팀

자료수집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정책팀 공동

디자인 | 맹지혜, 성정문